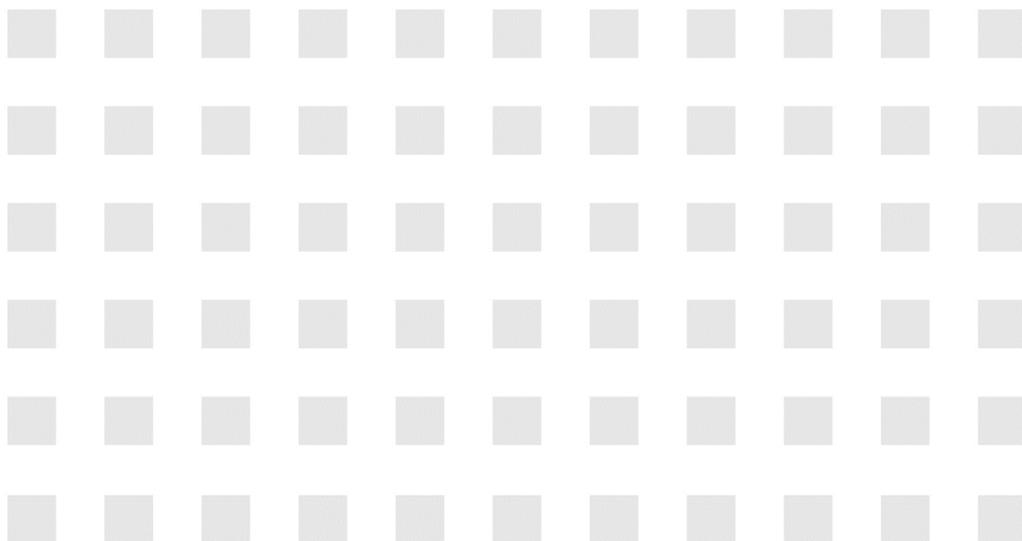


# JRI

##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

—

한동수 · 김라니





## 발 간 사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는 《동국여지승람》(성종 12년, 1481년)의 〈제주목〉 ‘제영편’에 실린 한 줄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관노 민수가 쓴 제목 미상의 기문에 “물나라의 갈대는 운몽의 저녁이오, 산성의 굴과 유자는 동정의 가을이로다. 돌담과 판잣집은 백성 사는 곳에 궁벽하고, 다른 옷과 말소리는 나그네의 근심 되나니…….” 라는 문장 속에서 판잣집[板屋]이 언급되면서, 기존 제주의 전통 건축유형으로 알려진 ‘초가’와 ‘와가’ 이외에 ‘판옥’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기록을 남긴 관노 민수라는 인물의 자취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제주 판옥의 실존 가능성에 관한 세 가지 가설을 세우고, 구체적인 기록물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은 현존하는 건축물의 부재로 인해, 오로지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연구진 여러분께서 ‘제주 판옥’의 존재 가능성과 그 기원을 찾기 위해 제주와 강원도, 울릉도를 오가며 현장 답사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고서 내에는 이와 같은 현장 답사를 통해 수집해 정리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 센터의 ‘2021 제주학 연구비 공모 사업’ 자유주제 선정 과제여서 그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연구를 위해 애쓰신 한양대학교 한동수 교수님과 공동연구원인 김라니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 수행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리 센터 고은솔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연구 성과가 제주 가옥 연구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 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제주 판옥(板屋)의 배경	4
1. 제주 판옥의 기록과 해석	4
1-1. 제주판옥의 기록과 해석	4
1-2. 제주 판옥의 기록자 : 관노 민수	5
1-3. 제주 판옥의 기록지 : 『동국여지승람』	6
2. 도근천에 관한 기록과 해석	8
3. 제주 판옥과 유사한 기록들	11
4. 용어의 정의	14
5. 소결	17
III. 제주 판옥(板屋)의 실존 가능성에 관한 가설	18
1. 배로부터 기인한다는 가설	18
2. 제주에 남은 원(元)제국의 후손들과의 연관성	22
3. 조선초기 이주민들의 주거 가능성	24
4. 소결	26
IV.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연관성	26
1. 관련 기록들을 통해서 본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연관성	26
1-1. 배목수가 건축(建築)에 동원된 기록들	26

1-2. 승려들을 배 건조(建造)에 참여시킨 기록들 .....	27
1-3. 판옥선(板屋船)과 판옥(板屋)의 연관성 .....	28
2.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상호 구조적 연관성 .....	29
2-1. 출수된 고려시대 목선 : 고려선 .....	29
2-2.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 .....	33
2-3. 출수된 목선과 건축의 목구조 비교 .....	36
3. 소결 .....	41
<b>V. 몽고 판옥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 판옥과의 연관성 .....</b>	<b>42</b>
1. 몽고 판옥에 관한 우리의 기록 .....	42
2. 제주에 남은 원제국 후손들의 사회적 위치와 주거 .....	43
3. 몽고 판옥의 사례 .....	44
4. 소결 .....	45
<b>VI. 너와집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 판옥과의 연관성 .....</b>	<b>46</b>
1. 강원도 삼척지역의 너와집 특징 및 사례 .....	46
1-1. 강원도 삼척지역의 너와집 특징 .....	46
1-2. 삼척 대이리 너와집 .....	47
1-3. 삼척 신리 너와집 .....	50
2. 울릉도 지역의 너와집 특징 및 사례 .....	54
3. 석판집의 사례 .....	59
4. 소결 .....	62
<b>VII. 결 론 .....</b>	<b>64</b>
<b>참고문헌 .....</b>	<b>67</b>
<b>Abstract .....</b>	<b>70</b>

## 표차례

〈표 1〉 제주 판옥과 유사한 국내 판옥에 관한 기록들 .....	11
〈표 2〉 도근천에 관한 주요 기록들 .....	21
〈표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저발굴조사 현황 .....	30
〈표 4〉 우리 전통 배의 주요 명칭 .....	31
〈표 5〉 마도1호선-3호선에 적용된 목구조 현황 .....	32
〈표 6〉 마도1호선-3호선 기준의 배와 건축의 목구조 비교 .....	37

## 그림차례

〈그림 1〉 연구 추진방법 .....	3
〈그림 2〉 도근천 위치안내도 .....	8
〈그림 3〉 2019년 12월 현재 도근천 현황사진 .....	9
〈그림 4〉 관노 민수의 추정거주지 .....	10
〈그림 5〉 일제강점기 토막집 .....	15
〈그림 6〉 판옥선 .....	16
〈그림 7〉 도근천 수정사지와 동여도 비교 .....	19
〈그림 8〉 최부외 43인의 여정도와 각국으로 번역 출판된 표해록 .....	19
〈그림 9〉 탐라순력도의 제주배와 복원·해체된 덕판배 .....	21
〈그림 10〉 중세 동북아 해양교류도 .....	23
〈그림 11〉 해저발굴조사된 유구를 조합하여 만든 고려선 상상도 .....	29
〈그림 12〉 우리 전통 배의 구조단면도 .....	31
〈그림 13〉 안동 봉정사 극락전 사진, 2021년 10월 현재 .....	33
〈그림 14〉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사진, 2021년 10월 현재 .....	34
〈그림 15〉 영주 부석사 조사당 사진, 2021년 10월 현재 .....	34
〈그림 16〉 예산 수덕사 대웅전 사진, 2021년 08월 현재 .....	35

〈그림 17〉 강릉 임영관 삼문(객사문) 사진, 2021년 08월 현재	35
〈그림 18〉 청대 몽골 지역의 판옥	43
〈그림 19〉 내몽골 호룬페이(呼倫貝爾) 무각릉(木刻楞) 사진, 2008년 현재	44
〈그림 20〉 삼척 대이리 너와집 배치평면도 및 측면도	47
〈그림 21〉 삼척 대이리 너와집 전경, 2021년 8월 현재	48
〈그림 22〉 지붕의 외부 및 내부 사진, 2021년 8월 현재	48
〈그림 23〉 처마상세도 및 사진, 2021년 8월 현재	49
〈그림 24〉 외양간 외벽 사진, 2021년 8월 현재	49
〈그림 25〉 삼척 신리 너와집 배치평면도 및 측면도	50
〈그림 26〉 삼척 신리 너와집 전경, 2021년 8월 현재	51
〈그림 27〉 측면사진, 2021년 8월 현재	52
〈그림 28〉 합각부 까치구멍과 지붕 사진, 2021년 8월 현재	53
〈그림 29〉 처마상세도와 사진, 2021년 8월 현재	53
〈그림 30〉 외양간 외벽 사진, 2021년 8월 현재	54
〈그림 31〉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 전경	55
〈그림 32〉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 지붕상세 사진	56
〈그림 33〉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 내부 가구 사진	56
〈그림 34〉 울릉 나리 역새 투막집 전경	57
〈그림 35〉 울릉 나리 역새 투막집 정지	58
〈그림 36〉 울릉 나리 역새 투막집 내부 통로	58
〈그림 37〉 평안도 만포 석판집 전경	59
〈그림 38〉 만포 석판 여관	60
〈그림 39〉 만포 석판 국영만포직장상점	60
〈그림 40〉 만포 석판집과 우물	61
〈그림 41〉 파주시 금촌리18 석판집 전경	61
〈그림 42〉 파주시 금촌리18 석판집 지붕 사진, 2021년 06월 현재	62
〈그림 43〉 파주시 금촌리18 석판집 안채 사진, 2021년 06월 현재	62

## I. 서론

- 한국건축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발견한 제주 판옥(板屋)이라는 새로운 건축 유형이 제주기록물에서 발견되어 지난 2016년 논문을 통해 발표되었지만, 후속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한 줄의 문헌 기록만 남아있고 물증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제주 판옥이라는 건축유형의 출현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기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됨
- 특히, 오랜 역사에 비해 대다수가 소실되어 현존 건축유적이 매우 적은 우리 현실에서 본 연구는 우리 건축의 다양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음

## II. 제주 판옥의 배경

- 동국여지승람(성종 12년, 1481년)의 제주목 제영편 관노 민수의 제목 미상 기문이 실림
  - 頭目未詳 水國蒹葭雲夢暮. 山城橘柚洞庭秋. 石墻板屋民居壁. 異服殊音客子愁.
  - 역문\_제목미상 물나라의 갈대는 운몽의 저녁이요, 산성의 귤과 유자는 동정의 가을 이рода. 돌담과 판잣집은 백성 사는 곳에 궁벽하고, 다른 옷과 말소리는 나그네의 근심 되나니
  - 여기서 돌담 판잣집(石墻板屋)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기존 제주의 전통 건축유형은 '초가'와 '와가'로만 알려져 있었던 터라 '판옥'이라는 새로운 건축유형의 존재를 발견하였기 때문
- 글을 쓴 관노 민수는 본래 사관(史官) 출신으로, '민수사옥(閔粹史獄)'을 일으켜 제주목에 충속되었다가 약 8년 뒤 사면받고 복직된 자로 신뢰할만한 역사적 인물이며, 그의 기록 또한 역사적 사실이기에 제주 판옥이 실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관노 민수의 또 다른 기문에서 그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소인

도근천이 언급되었는데, 도근천은 한라산 인근에서 발원하여 외도포구로 이어지는 곳으로 건천이 대다수인 제주에서 비교적 수량이 풍부한 하천임

- 조선 시대의 판옥에 관한 기록은 수군 관련 자료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판옥선'의 개념을 빌려 '판옥'의 용어를 정의함
  - 판자 즉 '널'을 이용하여 지은 집
  - 혹은 '널'로 지붕을 올린 집

### III. 제주 판옥의 실존 가능성에 관한 가설

- 첫째, 배로부터 기인한다는 가설
  - 관노 민수의 추정 거주지가 외도포구와 합수되는 도근천 인근인 것에서 착안하여, 판옥(板屋) 재료인 '널'이 폐목선이나 혹은 목선의 잔편(殘片)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첫 번째 가설을 세움
- 둘째, 제주에 남은 원제국의 후손들과의 연관성
  - 고려 말 목호의 난 평정 이후 살아남은 원제국의 후손들은 관노가 되거나 말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배치되면서 초지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때 이동식 몽고풍의 판옥이 이들의 주거 형태일 수 있음
- 셋째, 조선 초기 제주로 유입된 이주민들의 주거 가능성
  - 조선이 개국하고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육지부의 승려들이 이런 탄압을 피해 제주로 이주하거나, 당시의 혼란한 사회에 부적응한 자들 상당수가 중앙의 행정력이 덜 미치는 제주로 이주하게 되면서 제주는 한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들 이주민들에 의한 주거시설이 바로 제주 판옥일 가능성이 있음

### IV.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연관성

- 배목수가 건축공사에 동원된 기록들과 승려들을 배 건조에 참여시킨 기록들을 살펴보면 배 목수들이 건축(建築)에 동원되거나 승려들 또한 배의 건조

(建造)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인 목수들이 상당히 존재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판옥선과 판옥의 연관성

- 판옥선이 1555년(명종 10년)이 돼서야 새로운 군함으로 건조되었고, 이에 비해 제주 판옥(板屋)은 1481년(성종 12년)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판옥선보다 무려 74년이 앞서는 기록이기 때문에 판옥이 판옥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음

○ 여러 기록과 정황 등을 근거로 판옥이 실존했고, 배와 관련이 있으며, 판옥선과의 연관성까지 확장 시켜볼 수 있었으며, 이 경우 판옥은 제주만의 건축 유형이 아니라 도서 해안지방에 널리 퍼진 일반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또한 제주 배와 제주 건축을 비교하지는 못하였지만, 대신에 고려선인 마도 1호선에서 3호선의 목구조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전통 건축의 목구조에 대입하여 비교함으로써 배와 건축의 구조적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음

○ 특히 바람의 영향이 큰 제주 해안지역에서 배에 적용되는 연결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 시대 의궤의 기록처럼 길고 휘어진 부재를 다듬는 방식이 적용되었을 수도 있음

## V. 몽고 판옥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 판옥의 연관성

○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을 탄생시켰던 송나라를 누르고 제국을 건설한 오랑캐 몽고인을 비하하고자 '판옥인'이라 칭하던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시를 통해 몽고인의 주거는 판옥이라는 인식을 당시 조선인들도 했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주에 남겨진 원제국의 후손들이 말을 관리하면서 몽고풍의 이동식 주거형태인 판옥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함

## VI. 너와집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 판옥과의 연관성

- 이주민들에 의해 지어진 삼척지방의 너와집은 주변의 풍부한 수목을 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난방을 하는 공간은 흙벽으로 만들고 그 외의 공간은 두꺼운 널을 사용하여 판벽을 만들었으며, 마루형 중심의 안동식 까치구멍집의 형태를 보이기도 함
- 나무를 쪼개 만든 판재를 결속재 없이 차곡차곡 쌓고 거대한 통나무인 누름대와 주변의 돌을 엮음으로써 그 무게만으로 지탱하는 방식은 바람의 영향이 없기에 가능한 것
- 화전의 시작이 신라로 거슬러 올라가기는 하지만, 현재 삼척지방의 너와집이 신라대로 올라가는 화전의 역사와 함께하는 화전민 고유의 주거인지 확신하기 어려움
  - 현재 남아 있는 너와집들은 이르면 대이리 너와집처럼 17세기의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20세기 전후의 것들로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의 상황이 반영된 것임
  - 평면구성을 보면 현재 주민들의 조상이 이주 전에 살았던 경북지역의 형태를 닮음
  - 다만 재료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함
  - 즉, 평면구성 등은 이주민들의 고향의 형식이지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기존 화전민의 방식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함
  - 따라서 이주민들에 의한 주거가 생겨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 있음
- 바람의 영향이 큰 제주에서 지붕재의 결속없이 삼척지방의 너와집 형식으로 판옥이 존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재료 수급에도 삼척지방과 달리 어려움이 있음
- 반면 울릉도 지역의 울릉 너와 투막집의 경우 지붕재의 결속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돌을 사용하거나 집의 모든 재료를 나무 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주 판옥의 형상을 이미지화하는데 참조가 될 만한 사례로 보임

## Ⅶ. 결 론

- 관노 민수의 한 줄 기록으로부터 시작된 본 연구는 비록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인 건축유적이거나 그 외의 직접적인 추가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기록을 대조하고, 관련 사건 간의 연계성을 유추하여 세 가지 가설을 세움
  - 첫째,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연관성
  - 둘째, 몽골 판옥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 판옥과의 연관성
  - 셋째, 너와집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 판옥과의 연관성
-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은 두 분야에서 활약한 기술자인 목수들의 활동에 관한 기록을 토대로 시작하였고, 의뢰를 통해 각 분야 기술자들의 특징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수군사를 토대로 판옥선과의 연관성을 통해 배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고자 했는데, 이 경우 제주 판옥은 도서 해안지방에 널리 퍼진 일반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고 추정 됨
- ‘판옥인’은 몽고인이라는 시 한편이 재인용을 반복하는데, 적어도 몽고인이 판옥에 산다는 인식을 조선시대에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에 남은 원제국의 후손들은 관노로 신분이 추락하고 초지에서 말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였기에 몽고풍의 이동식 주거형태인 판옥을 이용했을 수도 있음
- 판옥의 사례로 볼 수 있는 너와집은 제주 판옥의 가능성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실증적인 건축유물이지만, 삼척의 경우 이주민들의 새로운 주거를 만들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하는데, 기본구조나 기술은 이주 전의 것이지만 재료는 이주한 곳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주한 환경에 맞게 그 구조를 변형시킨다는 점이며, 울릉도의 사례는 돌을 사용하거나 집의 모든재료를 나무 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주 판옥의 형상을 이미지화하는데 참조가 될만함
- 비록 한줄의 문헌 기록으로 시작한 본 연구이지만, 오랜 역사에 비해 대다수가 소실되어 남은 건축유적이 매우 적은 우리 현실에서 본 연구는 우리 건축의 다양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음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연구의 배경

- 한국건축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발견한 제주 판옥(板屋)이라는 새로운 건축유형이 제주 기록물에서 발견되어 『제주 정의현[성읍]의 건축문화유산과 그 진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 학위논문(김라니, 한양대학원, 2016)을 통해 발표되었지만, 실증적인 증거 부족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던 차에 지난 2019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를 통해 제주 판옥이 배로부터 기인한다는 가설과 제주에 남은 원제국의 후손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가설논문<sup>1)</sup>을 발표하게 됨
- 비록 한 줄의 문헌 기록만 남아있어 물증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제주 ‘판옥(板屋)’이라는 건축유형의 출현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기에 후속 연구를 진행하게 됨
- 특히, 오랜 역사에 비해 대다수가 소실되어 남은 건축유적이 매우 적은 우리 현실에서 본 연구는 우리 건축의 다양성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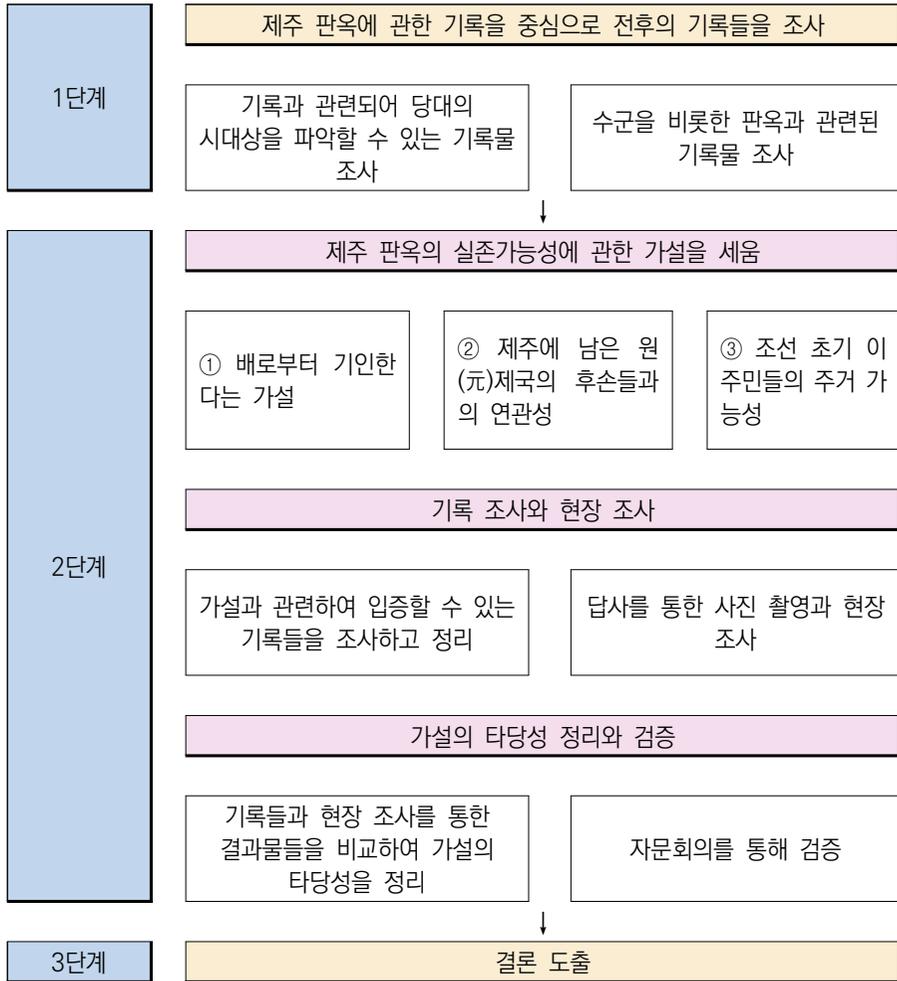
### 1-2. 연구의 목적

- 제주 판옥의 기록과 관련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면밀히 조사할 것
- 제주 판옥의 실존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여 제주 판옥의 실존 가능성을 밝힐 것

1) 김라니, 한동수, 「제주판옥(板屋)에 관한 연구-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제영편을 중심으로」, 건축역사학회 2019추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9, 75쪽-77쪽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제영편의 제주 판옥의 기록을 기준으로 전후의 기록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석학적 연구방법 중심으로 연구
- 제주 판옥에 관한 실존적 가능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가설을 세움
  - 첫째, 배로부터 기인했다는 가설
  - 둘째, 제주에 남은 원(元)제국의 후손들과의 관련성
  - 셋째, 조선초기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제주로의 유입된 이주민들과의 관련성
- 이러한 세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각각을 증명하고자함
  - 기록을 통한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연관성을 우선 밝히고, 해저발굴조사된 고려시대의 목선과 동시대의 건물들을 비교함으로써 실증적인 증명을 하고자 함
  - 제주에 남겨진 원제국의 후손들의 사회적 위치와 그들의 주거환경과 몽고 판옥의 사례를 통해 제주 판옥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함
  - 국내 판옥의 사례로 볼 수 있는 너와집을 통해 제주 판옥의 가능성을 찾고자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장 답사 등을 통한 자료조사가 필요함



〈그림 1〉 연구 추진방법

## II. 제주 판옥(板屋)의 배경

### 1. 제주 판옥의 기록과 해석

#### 1-1. 제주 판옥의 기록과 해석

- 조선전기 동국여지승람(성종 12년, 1481년)의 제주목 제영편 관노 민수의 제목 미상 기문

- 頭目未詳 水國蒹葭雲夢暮. 山城橘柚洞庭秋. 石牆板屋民居壁. 異服殊音客子愁.

역문\_제목미상 물나라의 갈대는 운몽의 저녁이요, 산성의 귤과 유자는 동정의 가을이로다. 돌담과 판잣집은 백성 사는 곳에 궁벽하고, 다른 옷과 말소리는 나그네의 근심 되나니.

해석\_민수의 7언 절구로 다른 문헌에는 전하지 않는다. 제주의 백성들이 사는 돌담 두른 판잣집을 말했다. 시인은 제주의 갈대와 귤을 각각 중국의 그것과 나란히 짝지어 그 훌륭함을 표현하였다. 또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제주만의 돌담과 특이한 사투리에 조금은 낯선 기분을 느끼며 나그네의 수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운몽(雲夢)은 호수이름인데 호북성(湖北省) 안륙현(安陸縣) 남쪽에 있고, 동정(洞庭)은 동정호(洞庭湖)를 말하는데 귤 중에 동정귤(洞庭橘)이 있다.<sup>2)</sup>

- 이는 201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에서 발행한 『동국여지승람 제영 사전 군현편』의 해석내용
- 기문을 쓴 관노 민수는 사옥을 일으켜 제주로 총속된 인물로, 신분 추락을 하였음에도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며 서울의 벼슬아치였던 자신이 제주의 사람들 속에서 관노라는 낯선이로 살아가는 심정을 담아냄

2) 김건곤, 김태환, 어강석, 김정민 편, 『동국여지승람 제영사전 군현편』,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2014, 587쪽

- 여기서 ‘판옥(板屋)’은 그가 살았던 곳이라는 직접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관노민수의 주거나 단정짓기 어려움
- 또한 ‘판잣집은 백성 사는 곳에 궁벽하고’라 함은 ‘판잣집은 백성사는 곳인데 궁벽하다’ 이거나 ‘판잣집은 백성사는 곳으로부터 궁벽하다’ 일 수 있기때문에 해석이 불분명함
- ‘판옥(板屋)’이라는 단어 자체의 해석이 다르거나 기록 자체의 오타일 수도 있어서 또 다른 해석본인 (재)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1년 재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V』를 찾아 교차 검증하였으나 해석의 차이가 없음
  - (생략)...‘전 사람의 시에 “물 나라의 갈대는 운몽의 저녁이요 산성의 굴과 유자는 동정의 가을이로다, 돌담과 판자 집은 백성 사는 곳에 궁벽하고, 다른 옷과 다른 말소리는 손 된 사람의 근심이로다.”<sup>3)</sup>

## 1-2. 제주 판옥의 기록자: 관노민수

- 관노 민수는 본래 사관(史官) 출신으로, ‘민수사옥(閔粹史獄)’을 일으켜 제주로 충속됨
- 제주 판옥이 신뢰할만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서 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라면, 이것을 기록한 관노 민수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와 그가 기록한 것들이 역사적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민수(閔粹)는 조선 전기 인수부승, 예문관 응교, 사간원 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고려시대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종유(宗儒)의 6대손으로, 할아버지는 참판 심언(沈言)이고, 아버지는 충원(冲源)이며, 어머니는 오보(吳溥)의 딸이다. 세조 2년(1456년)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했고, 세조 5년(1459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검열로 처음 벼슬길에 올랐으며, 곧 인수부승(仁壽府丞)으로 옮겨졌다. 같은 해 6월 인수부승 재직 중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이영은(李永垠)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한관(閑官)을 제수하여 학문에만 전념하게 하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혜택을 받았다. 그 뒤 세조대를 통하여 사관직(史官職)을 겸대, 세조 10년(1464년) 천문·풍수·율려(律呂)·의학·음양·사학(史學)·시학(詩學)의 육성을 위하여 각 분야에 6인의 젊은 문신을 배치할 때 최경지(崔敬止) 등과 함께 시학문(詩學門)에 배속되었다. 예종 1년(1469년)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재직 중 춘추관이 《세조실록》의 편찬을 시작하자 그간에 작성한 사초(史草)를 수납하였다. 이때 그가 작성한 사초에는 실록 편찬을 주관한 대신 등의 득실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초에 이를 기록한 사관의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춘추관 기사관 강치성(康致誠) 등과 몰래 해당 사초를 꺼내어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양성지(梁誠之)에 관계된 내용 등에 6사(六事)를 고쳐서 납입

3) (재)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V』, (재)민족문화추진회, 재판, 1971, 95쪽

하였다. 곧 이 사초 개정이 탄로나면서 의금부에 수감되어 사형으로 논죄 되었다. 그러나 예종이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 서연관(書筵官)이었다는 인연과 독자(獨子)라는 입장이 고려되어 특별히 죽음을 면하고 제주도에 관노(官奴)로 충속(充屬 : 보충, 소속되어 역을 수행함)되었다. 성종 8년(1477년) 죄에서 풀려서 예문관봉교에 제수되었다. 그 뒤 예문관 응교와 사간원 사간 등을 역임하였다.<sup>4)</sup>

- '민수사옥'이라는 사건명 또한 그가 사초(史草)를 개서(改書)한 일로 인해 일어나 사건이며, 그가 사면된 후에도 다시 사관(史官)으로 복직되었기에, 그는 조선전기 역사적 기록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와 관련된 기록은 『예종실록』, 『국조방목』, 『연려실기술』, 『점필재집』 등의 신뢰할 만한 조선시대의 사료에 기록되어 있고, 현대에도 1981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판한 『한국사론』에 차용걸이 쓴 「조선왕조실록의 편찬태도와 사관의 역사인식」에 기록되어 있음<sup>5)</sup>
- 따라서 민수사옥이 일어났던 예종 1년(1469년)부터 죄를 사면받은 성종 8년(1477년)까지 약 8년간 제주 관노로 충속되어 있던 기간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가 기문의 형태로 남긴 제주 '판옥(板屋)'의 기록 역시 사료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신뢰할 만한 역사적 사실인 것임

### 1-3. 제주 판옥의 기록지 : 『동국여지승람』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성종 12년(1481년) 총 50권으로 편찬된 조선 전기의 대표적 관찬 지리서
  - 성종(1469~1494)은 노사신(盧思愼)·양성지(梁誠之)·강희맹(姜希孟) 등에게 명(明)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와 조선에서 제작했던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참고하여 새로운 지리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했다. 이 작업의 결과로 완성된 지리서가 바로 『동국여지승람』이다. 처음에 『동국여지승람』은 모두 50권으로 제작되었고, 이후 성종 대와 연산군(1494~1506) 대에 수정 작업을 거쳤다.
  - 그 결과 중종 25년(1530년)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이 증보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간행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모두 55권 25책이다. 권1~2 경기도(京都),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

4) 한충희, 「민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2021/07/0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AF%BC%EC%88%98&ridx=0&tot=19>

5) 전개서

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각 지역의 앞부분에 각 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도의 연혁·풍속·묘사(廟社)·능침(陵能)·궁궐·관부(官府)·학교·토산(土産)·효자·열녀·성곽·산천·누정(樓亭)·사사(寺社)·역원(驛院)·교량(橋梁) 등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서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사회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지리 연구는 물론 지방 사회의 모습을 연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sup>6)</sup>

- 민수가 사면을 받고 사관에 복직되었지만, 일개 지방의 관노였던 시절 쓰인 그의 기문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릴 수 있게 된 배경파악이 필요함
- 『동국여지승람』은 민수가 사면받아 사관으로 복직했던 성종 8년(1477년)보다 약 4년 뒤인 성종 12년(1481년)에 편찬되었고, 편찬하던 이들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미 사면받은 그이기에 그의 기문도 당시 지리편찬서인 동국여지승람의 전라 제주목의 기록으로 넣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비록 한때는 자신들이 부리던 관노였으나 조정으로 복직한 그의 기문을 제주목의 관리들이 누락시킬 수는 없었을 것임
- 광해군과 추사 김정희 등으로 대표되는 '귀양다리'는 제주로 유배된 이들을 부르는 제주어로, 이들 중 대다수는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유학이 제주에 뿌리내리도록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이들도 있었고, 중앙으로의 진출 등을 꾀하던 제주의 관리들이나 사대부들과 상인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제주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 혼맥을 형성하기도 함
- 따라서 당대 수재이며 임금의 서연관(書筵官)<sup>7)</sup>이었던 민수 역시 비록 관노였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그의 학문은 계속 이어졌을 것이고, 그 결과 제주 '판옥'에 관한 기문도 남길 수 있었던 것

6) 국사편찬위원회, 『동국여지승람』, 검색일:2021/07/05,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lid=0100&levelid=tg\\_003\\_0990](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lid=0100&levelid=tg_003_0990)

7) 왕세자의 교육을 맡았던 세자시강원의 관리들로서,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대개 오랫동안 세자를 가르쳤으므로, 뒤에 그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하였다.

- 권연웅, 「서연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2021/07/0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4%9C%EC%97%B0%EA%B4%80&ridx=0&tot=3373>

## 2. 도근천에 관한 기록과 해석

- 관노 민수의 또 다른 기문에서 그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소인 도근천이 언급됨
  - 頭目未詳 都近川肥潮長夜, 漢拏山瘦葉彫秋
  - 역문\_제목미상 도근천이 살찼으니 조수가 긴밤이요, 한라산이 야위었으니 잎사귀가 시드는 가을이로다.
  - 해석\_민수의 7언시로, 다른 문헌에는 전하지 않는다. 제주의 하천인 도근천에 대해 말했다. ...(중략)...제주도의 가을 풍경을 읊은 시다. 조수가 밀려 들어와 물이 불어난 도근천의 밤 풍경과 한라산의 야위어가는 듯한 가을을 말하고 있다.<sup>8)</sup>
- 기문에서 언급된 도근천은 <그림 2>와 같이 한라산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여승생악 아흔아홉골 인근에서 발원하여 <그림 3>과 같이 어시천을 합수하고, 다시 광령천에 합수되어 외도포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감



<그림 2> 도근천 위치안내도 (출처: <https://map.kakao.com/>)

8) 김건곤, 김태환, 어강석, 김정민 편, 『동국여지승람 제역사전 군현편』,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2014, 586쪽



〈그림 3〉 2019년 12월 현재 도근천 현황사진

- 관노 민수가 조수가 밀려 들어와 물이 불어난 도근천이라 하였으므로 보통 건천인 상태의 제주 하천을 떠올린다면, 그가 말한 도근천은 항상 물이 있는 외도포구 근처일 것으로 추정됨
- 또한 평소에 건천이었다가 조수가 밀려 들어와 일시적으로 하천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도근천이 살이 찼다고 시적 표현을 한 것이라 해도 현재의 외도포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일 것임
- 그렇다면 <그림 4>와 같이 도근천 오른쪽 인근으로 그의 거주지를 추정해 볼 수 있음
- 이곳은 또한 관노 민수가 총속되었던 곳인 제주읍성의 관덕정<sup>9)</sup>에서 현재 도근교까지 도보거리로 약 9Km 정도가 되는데, 옛길과의 오차가 있다 하여도 반나절을 넘기기 어려운 거리이기에 당시 관노 민수가 일상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거리였을 것임



<그림 4> 관노 민수의 추정거주지 (출처: <https://map.kakao.com/>)

9) 관덕정(觀德亭)은 1448년(세종 30) 목사 신숙청(辛淑淸)이 군사들의 훈련청으로 창건한 제주도의 대표적 건물의 하나로, 1480년(성종 11)에 목사 양찬(梁讚)이 중수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되었으며, 1969년에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덕(觀德)이란 문무의 올바른 정신을 본받기 위해 '사자소이관성덕야(射者 所以觀盛德也, 활을 쓰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에서 따온 말로, 평소 마음을 바르게 하고 훌륭한 덕을 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누정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단층 팔작지붕건물이며, 창호와 벽체를 가설하지 않고 사방이 모두 개방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4770>

### 3. 제주 판옥과 유사한 기록들

-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한자 '板屋'으로 검색되는 수는 총 653건으로 이중 고전번역서의 건축에 해당하는 건은 42건이고, 국내의 것은 19건으로 제주 판옥과 비슷한 상황의 기문은 <표 1><sup>10)</sup>과 같이 9건 정도로 추릴 수 있음

<표 1> 제주 판옥과 유사한 국내판옥에 관한 기록들

순	작자	문집	제목	내용	비고
1	이승소 (세종4-성종15, 1422-1484)	삼탄집 제 4권	연풍	槿籬板屋時時見	
2	성현 (세종21-연산군10, 1439-1504)	허백당집 제 7권	宿五色驛	板屋倚孤峯	
3		허백당집 제12권	題碧團鎮 二首	城裏參差板屋多	
4		허백당집 제13권	題古理山驛舍	板屋參差傍綠堤	
5	유몽인 (명종14-인조1, 1559-1623)	어우집 제 1권	江界神光院次韻 三首	松籬板屋負崖陰	
6	신흠 (명종21-인조6, 1566-1628)	상촌집 제16권	詠事	板屋斜連古樹堤	
7	이민구 (선조22-현종11, 1589-1670)	동주집 제13권	送朴旌善 慶應	佃戶人稀板屋貧	
8	박세당 (인조7-숙종29, 1629-1703)	서계집 제 3권	-	板屋柴籬聞語音	
9	채제공 (숙종46-정조23, 1702-1799)	번안집 제 9권	馬上有吟	匏葉籠籬板屋靑	

- 이승소의 삼탄집 제4권의 연풍으로 고전번역원에서 판옥을 너와집으로 번역한 것은 유일한 사례임

- 邑居彫弊又無城 滂滂唯聞澗水聲 四面山高能礙日 千章木密可藏鶯 槿籬板屋時時見 粟飯藜羹苦生 爲報明侯須努力 更教殷富享昇平
- 고을 아주 잔폐되고 성도 또한 없거니와 팔팔대며 흘러가는 냇물 소리 들려오네 사면에는 산 높아서 해가 일찍 넘어가며 높이 자란 나무 많아 새들 깃들 만하구나 나무 울에

10) 한국고전번역원, 「板屋」, 검색일:2021/10/09, <https://db.itkc.or.kr/>

너와집이 가끔 가다 보이거나 조밥에다 명아주 국 고생 속에 살아가네 수령에게 말하거니  
니 부디 힘써 노력하여 부유하게 만들어서 승평 누려 보게 하소

■ 성현의 허백당시집(虛白堂集) 제7권 宿五色驛(오색역에서 자다)

- 過盡海千里 始緣山萬重 荒溪開小谷 板屋倚孤峯 樹密多禽語
- 바닷가 천리를 다 지나와서는 비로소 만겹 산을 따라 들었네 황량한 시내는 작은 골에  
흐르고 판잣집은 외로운 산에 의지했는데 나무가 백백해 새소리는 들리고

■ 성현의 허백당시집(虛白堂集) 제12권(벽단진에 쓰다 2수)

- 城裏參差板屋多 三冬計活苦蹉? 如今江水限南北 人散郊原牛散坡
- 성안에 들쭉날쭉 들어선 판잣집들 긴긴 겨울 먹고살기 너무도 힘들었지 지금은 강이 풀려  
남북으로 막아 주니 산비탈로 들판으로 흩어져서 농사짓네 강가에 산봉우리

■ 성현의 허백당시집(虛白堂集) 제13권 題古理山驛舍(옛 이산 역사에 쓰다)

- 板屋參差傍綠堤 古城寥落有荒蹊 愁人獨背夕陽坐 瘦馬屢銜芳草嘶
- 푸른 둑 옆으로는 판잣집이 들쭉날쭉 옛 성은 쓸쓸한데 오솔길이 나 있구나 석양을 등진  
채로 혼자 앉아 근심할제 야윈 말은 향기로운 풀을 자주 씹고 있네

■ 유몽인의 어우집(於于集) 제1권의 江界神光院次韻 三首(강계 신광원에서 차운하다 3수)

- 盤雲嶺路下千尋 百二重關壯復深 梨面蓬頭供館候 松籬板屋負崖陰
- 구름 서린 고갯길 천 장 아래 굽어보는데 백이관은 웅장하고 또 깊숙하구나 늙은 얼굴  
속대머리로 역관의 대접받고 술 올타리 판잣집은 그늘진 벼랑을 등지고 있네

■ 신희의 상촌집(象村集) 제16권의 詠事(즉흥을 읊다)

- 鳳儀山外小溪西 板屋斜連古樹堤 巖徑客稀芳蘚合 柳橋陰暖晚鶯啼 洞中瑤草人爭寄 笈裏  
瓊編手自題 聞說茲區是仙府 煙霞隨處足幽棲 嫩綠殘紅小院幽 韶華過盡倩誰留 年來異  
地長爲客 老去逢辰祗自然 白紙作燈供節戲 青芹醞醋飾盤羞 休嫌村巷無佳伴 且對清樽到  
曉籌
- 봉의산 저 건너의 작은 시내 서쪽에 판자집 비스듬히 고목 언덕 잇닿았네 손님 드문 바  
윗길 고운 이끼 우거지고 그늘 다순 벼들다리 늦피꼬리 울어대네 마을 안의 진기한 풀  
사람들 서로 부쳐 오고 상자 속의 귀한 서책 손수 글을 쓴다네 듣자하니 이 지역은 다름  
아닌 신선 마을 연하 깔린 곳곳에 은거할 만하고 말고 이(二) 그윽한 작은 뜰 앞 푸르고  
꽃 시드니 지나가는 봄빛을 누를 빌려 만류할고 연래에 낯설은 땅 오랫동안 객이 되어  
늙어가며 만난 시절 그저 절로 시름겹네 흰종이로 등 만들어 명절 놀이 마련하고 미나리  
로 김치 담궈 소반의 반찬 꾸미네 시골 마을 좋은 벗 없다고 혐의 마소 맑은 술잔 마주  
하고 새벽까지 이른다네

■ 이민구의 동주집(東州集) 제13권의 送朴旌善 慶應(정선 군수 박 경응을 전송하다)

- 故友相逢白髮新 作官巖邑?清真 公庭務靜銅章澁 佃戶人稀板屋貧 任說窮山多虎豹 從教傲吏遠風塵 年來契闊傷心久 離恨無端又一春
- 옛 벗 만나니 백발 새로 자랐는데 산골의 원님 되어 청진한 성품 지키겠네 관아의 공무 한가하여 인장 거칠고 소작농에 사람 드물어 **판자집** 가난하지 궁벽진 산에 호랑이 많다고 하지만 오만한 관리 세속을 멀리하게 해야지 연래에 떨어져 지내며 오랫동안 마음 아팠는데 무단한 이별의 한 속에 또 한 봄 보내누나

■ 박세당의 서계집(西溪集) 제3권의 화천에서 풍악산으로 접어들어 수십 리를 가도록 계곡은 깊어지건만 인가는 끊어지지 아니하다

- 板屋柴籬聞語音 村村煙火傍溪陰 此間猶自羲皇俗 始覺桃源不大深
- **판자집** 싸리울에서 말소리 들려오고 마을마다 연기가 시내 따라 자욱하네 이곳은 여전히 희황의 풍속이니 도원이 아주 깊지 않음을 비로소 알았네

■ 채제공의 번안집 제9권의 馬上有吟(말위에서 읊다)

- 聞說溫泉祕地靈 片雲何處掩山扃 蕎花覆隴巖蹊白 匏葉籠籬板屋青 秋峽農憂霜每早 暮江寒吹雨新經 空門不待參禪坐 曲曲塵緣已蹈冥
- 온천의 숨겨진 땅이 신령하다 들었는데 조각구름은 어느 곳에서 산문을 닫았는가 메밀꽃이 구름 덮어 바윗길은 새하얗고 박잎이 울타리 둘러 **판자집**은 푸르구나 가을 골짜기 농사의 걱정은 향시 이른 서리인데 저녁 강에 찬 바람 불고 비가 새로 지나갔네 공문에 앉아 참선하길 기다리지 않더라도 구구절절한 속세 인연 이미 사라져 버렸어라

■ 국외의 사례로 대다수는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들의 기문이며,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사신들도 일부 기문을 남김

■ 특히 고려 우왕 3년(1377년) 대사성 정몽주가 일본으로 파견되었을 때 일본에서 쓴 시를 이후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들이나 일반 문인, 무관들이 비 내리는 풍경을 시로 쓸 때 자주 인용됨

- 板屋雨聲多 獨坐消長日 那堪苦憶家
- **판자집**에는 빗소리가 많다 혼자 앉아 긴 날을 보내노니 집 생각하는 괴로움 어이 견딜까

## 4. 용어의 정의

- 한국건축용어를 정리해 놓은 대표적인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장기인의 『한국건축사전』이나 김왕직의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을 찾아보면 판옥(板屋)이라는 용어는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돌기와집을 한자로 '石瓦家', '木板瓦家'로 표기하고, 영문으로는 'slate roofed house'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뜻은 얇은 판석으로 지붕을 덮은집, 너새집, 너와집이라고 되어 있는데,<sup>11)</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판(板)에 대한 해석임.
- 또 한 너와집은 한자로 '石瓦家', 영문으로 'slate roofed house'로 표기하고, 그 뜻은 ①얇은 돌판으로 지붕을 이은집, 너해집, 돌기와집 ②나무토막을 쪼개어 만든 널빤지로 지붕으로 이은집, 너새집, 널기와집(木瓦家)으로 되어 있음<sup>12)</sup>
- 널기와집은 '木板瓦家', 'shingle house'으로 뜻은 통나무를 45~60cm 길이로 자르고, 도끼로 쪼개어 만든 널로 지붕을 이은 집, 너와집<sup>13)</sup>
- 너와집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굴피집', 'bark roofed house'은 나무 껍질로 지붕을 덮은집<sup>14)</sup>이며, 지붕을 벗짚 또는 억새 등으로 이은 집은 '초가'<sup>15)</sup>이며 기와로 지붕을 이은 집은 '와가'로 지붕의 재료에 따라 명명된 것으로, 판옥(板屋) 역시 '판', 즉 '널'로 지붕을 올린 집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널'은 반드시 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석판과 같은 얇은 부재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제주 판옥의 경우 얇은 널로 쪼갤 수 있는 돌이 제주에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집을 구분하는 용어는 반드시 지붕 재료에 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면의 형태인 'ㄱ자집', '겹집' 등이나 지붕의 모양인 육모집, 다각집, 그리고 집의 쓰임새에 따른 '사당', '농막'이나 위치에 따른 '촌가' 등 그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로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 '판옥(板屋)'은 재료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함을 밝히고자 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판옥(板屋)은 "판자로 사방을 이어 둘러서 벽을 만들고 허술하게 지은 집, 판잣집"이라고 되어있음

11)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서울, 2014,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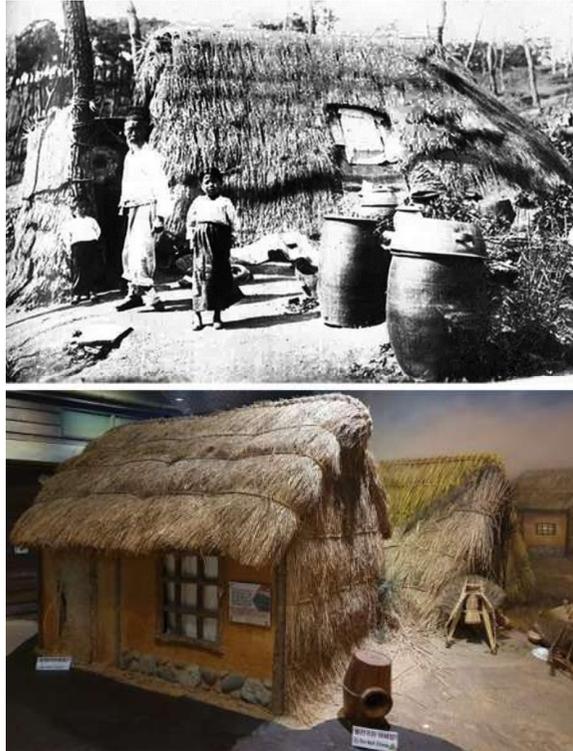
12) 전계서, 20쪽

13) 전계서, 21쪽

14) 전계서, 21쪽

15) 전계서, 21쪽

- 이는 역사적 고찰을 반영하기보다는 한국전쟁 이후의 ‘판잣집’의 일반적인 개념을 정의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는 일제강점기의 여러 자료에서 도시 빈민들이 허술하게 지은 집을 보통 ‘토막(土幕)집’이라고 하기 때문임



〈그림 5〉 일제강점기 토막집 (출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역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토막집’을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고 흙을 덮어 추우니 비바람만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 움집보다 작다.’라고 정의함
- 장기인의 『한국건축사전』에서 ‘토막집(土幕屋)’은 움집, 움막이며, 벽을 흙벽으로 쌓거나 거푸집 속에 이긴 흙을 다져 넣어 말리고 그 위에 지붕을 덮어 지은 집은 ‘토담집(土擔屋, clay walled house)’임<sup>16)</sup>
- 〈그림 5〉<sup>17)</sup>는 일제강점기 군산 선양동의 토막집 사진과 이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재현하여 전시한 것임

16) 전개서, 21쪽

17) 문정곤기자, 「일제강점기 군산조선인의 ‘달동네살’ 흔적찾기」, 전북일보, 전라북도, 기사게재일:2019/07/24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28>

- 조선 말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에는 유독 나무가 없는 별거숭이산들이 자주 보이고, 실록 등 조선 시대의 여러 기록에서도 ‘별목 금지령’이 자주 등장하는 등 나무도 귀하고, 판재도 귀했음
- 따라서 도시로 몰려든 빈민들은 구하기 어려운 나무보다는 땅을 파고 풀을 이용한 움막집, 즉 ‘토막집’을 짓기가 수월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한국전쟁과 이후에는 부서지고 무너진 건축물의 잔해 속에 폐자재가 된 ‘널’이 충분했을 것이고 이것들을 이용해 ‘판자집’을 짓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그림 6〉 판옥선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조선 시대의 기록을 보면 ‘판옥(板屋)’이라는 용어는 흔히 군선에서 사용된다. 거북선의 시초로 알려진 ‘판옥선(板屋船)’은 〈그림 6〉와 같이 ‘널반지로 지붕을 덮은 전투선’<sup>18)</sup>으로 이때 판옥은 지붕을 올린다는 의미로 쓰였음
- 이를 건축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음
  - 판자 즉, ‘널’을 이용하여 지은 집
  - 혹은 ‘널’로 지붕을 올린 집
- 따라서 본 연구는 관노 민수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만큼 조선 시대의 ‘판옥선’의 개념을 빌려 ‘판옥’을 정의하고자 함

18) 김재근, 「판옥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2021/07/0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680>

## 5. 소결

- 제주도에서 ‘판옥(板屋)’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는 관노 민수의 기록이 유일하며, 남아 있는 건축유적도 없음
- 중종 25년(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목편 풍속에서는 ‘초가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등 오직 초가와 와가에 대한 기록과 건축유적들이 남아 있을 뿐임
- 또한 『탐라순력도』와 같은 그림 형태의 사료와 그 외의 기록들에서도 제주 판옥으로 추정되는 건축유형은 보이지 않음
- 조선 시대의 ‘널’은 많은 품이 들어가는 고급 건축자재로, 얇은 ‘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켈툼과 같은 좋은 연장도 필요했을 것이므로, 관노가 거주하는 곳에 사용했다 단정하기도 어려움
- 하지만 당시는 일반 백성은 ‘테우’와 같은 뗏목만을 운영하고 부역과 진상품을 실어나르는 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배도 만들 수 없었던 출력금지령<sup>19)</sup>이 있기 160년 전이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전번역원DB에서 추린 9건의 판옥 관련 기문을 살펴보면 공통점은 외진 곳의 소박한 백성의 집으로 묘사되어 있고, 기문을 남긴 사람들의 고향이나 기문을 썼던 당시 살았던 곳을 추정해 본다면 강원도, 평안도, 경기도 등 비교적 전국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유형에 있어서는 평면이나 형태, 재료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제주 판옥의 기록이 <표 1>과 비교해 보면 앞선 시기의 것이 되어 후대로 올수록 타 지역은 판옥이 관찰되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음

19) 과도한 부역과 진상으로 피폐해지고 굶주린 제주도민들이 섬을 떠나면서 인구가 급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역과 진상에 차질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도민을 섬 밖을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강경책을 내놨다. 인조 7년(1629)에서 순조 25년(1825)까지 약 200년 동안 부역과 진상품을 실어나르는 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배 또한 만들 수 없었기에 어선 또한 ‘테우’ 같은 뗏목만을 사용할 밖에 없어 해안을 벗어나는 고기잡이는 할 수 없는 등 어업과 항해술, 배를 만드는 기술 등도 쇠퇴하였다. 이로 인해 목조술 또한 쇠퇴한 것이다.

### III. 제주 판옥(板屋)의 실존 가능성에 관한 가설

#### 1. 배로부터 기인한다는 가설

■ 관노 민수의 추정 거주지가 외도포구와 합수되는 도근천 인근인 것에서 착안하여, 판옥(板屋)의 ‘널’이 폐목선이나 혹은 목선을 만들다 남은 재료를 이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첫 번째 가설을 세움

■ 성종 19년(1488년) 최부의 표류기<sup>20)</sup>에 따르면 수정사 승려 지자의 배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옴

- [윤1월 초1일]비가 왔다.

제주목사가 새벽에 저녁에 와서 조문했다. 그는 수정사의 승려 지자의 배는 단단하고 빨라 관선이 미치지 못한다며...(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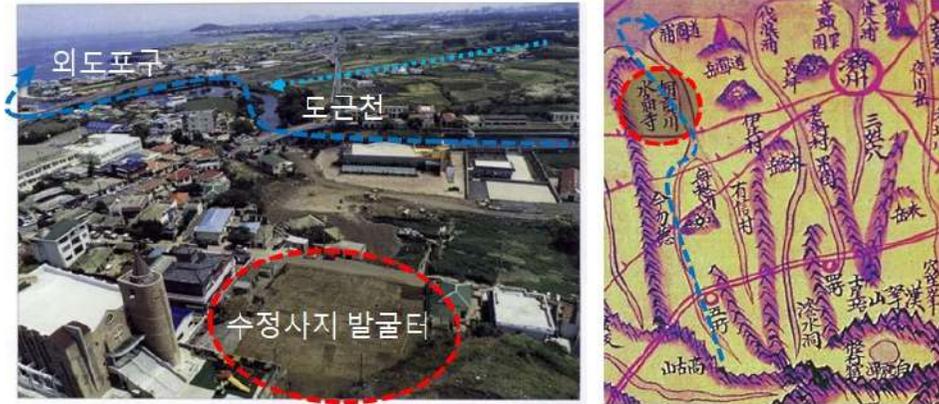
(수정사는 도근천 서쪽 언덕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8 제주목 불우 수정사의 창건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제주가 원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원이 창건했다는 설과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하여 몽골이 제주에 들어오기 이전인 13세기 중엽에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배는 일반적으로 전통 한선의 경우 소나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데, 제주의 선박은 구상나무를 사용하여 견고했다고 한다. 요시다게이지, 『조선수산개발사(朝鮮水産開發史)』, 조수회(潮水會), 195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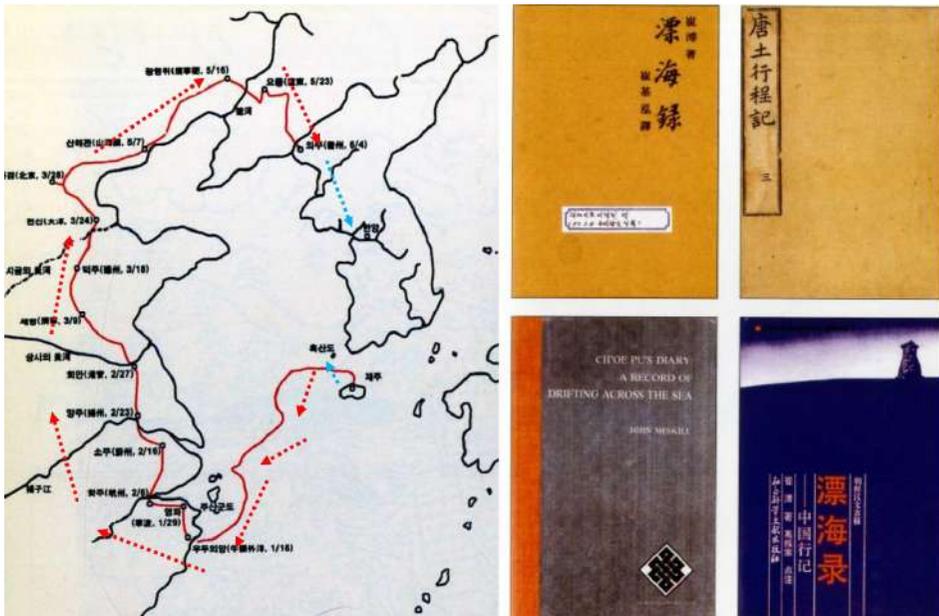
(최부가 승선했던 승려 지자의 배는 돛이 두 개인 당도리선으로 병조선 중 중선 정도의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성지, 「표해록을 통한 한중항로 분석」 동국사학 37, 2002)<sup>21)</sup>

20) 1487년 9월 제주주쇄경차관으로 제주에 갔다가 부친상으로 선원들의 만류에도 줄지 않은 날씨에 서둘러 귀향하다 표류하여 그림2와 같이 6개월간의 표류기를 성종의 명을 받아 『중조문견일기』을 3권으로 기록했다. 연산군 12년 갑자사회때 처형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신원이 복귀되었고, 외손자에 의해 『표해록』으로 간행되었다.

21) 최부, 서인범·주성지 번역, 『표해록』, (주)도서출판 한길사, 서울, 2004, 43쪽



〈그림 7〉 도근천 수정사지와 동여도 비교



〈그림 8〉 최부의 43인의 여정도와 각국으로 번역 출간된 표해록

- 여기서 수정사는 〈그림 7〉<sup>22)</sup>과 같이 도근천 서쪽에 있었던 사찰이고 이곳의 승려 지자가 가진 배는 구상나무 등으로 제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소나무로 만들어지는 육지의 관선에 비해 견고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그림 8〉<sup>23)</sup>처럼 최부와 43명의 일행이

22) 제주대학교박물관, 『외도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유적발굴조사 수정사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도, 2000, 2쪽

23) 최부, 서인범·주성지 번역, 『표해록』, ㈜도서출판 한길사, 서울, 2004, 7쪽

제주를 출발하여 표류하게 된 서남해의 거친 풍랑에도 무사할 수 있었고, 중국에도 역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임

■ 이 표류기는 당대의 동아시아의 정보를 담고 있기에 <그림 8>처럼 각국으로 번역 출간 되어 사료로 인정받고 있음

■ 어쨌든 이것은 관노 민수의 추정 거주지인 도근천 인근의 배에 대한 직접적 기록이며, 아래는 수정사지 발굴조사 보고서에 실린 도근천에 관한 내용으로 <표 2><sup>24)</sup>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도근내[都近川]’조에 “‘도근내’는 ‘제주 서쪽 18리에 있다. 일명 수정내[水精川], 조공내[朝貢川]라고 하다. 제주 사람이 말이 난삼(難澁)하여, 도근(都近) 자는 곧 조공(朝貢) 자의 잘못이다. 상류의 절벽은 높고 험하여 폭포가 수십 자(尺)를 날아 흘러 그 아래의 땅속으로 잠입(潛入)하여, 7~8리(里)에 이르러 돌 사이에서 솟아 나와 마침내 큰내(大川)의 하류를 이루므로, 도근개[都近浦]라 일컫는다. 아래에는 깊은 연못이 있고, 수달(獺狗)과 같은 물장(物狀)이 있는데, 잠복(潛伏)하여 변뢰를 일으킨다. 사람의 보물을 보면 손에 쥐어 연못 속을 들어간다. (都近川 在州西十八里. 一名水精川. 一名朝貢川. 州人語澁 道近字即朝貢字之誤. 岸壁高險 瀑布飛流數十尺, 其下潛入地中 至七八里, 湧出石間 遂成大川 未流稱都近浦. 下有深淵有物狀如 獺狗 潛伏變化 視人寶物 攬入淵中)”라고 기록되어 있다.<sup>25)</sup>

■ 즉 도근천의 원래 지명은 조공천이며, 이는 조정으로 보내는 공납물을 실은 배들이 이곳 포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인 것이며, 이는 최부의 기록과 더불어 제주의 배와 도근천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들이며 관노 민수가 제주에서 판옥에 대한 기록을 남기던 시기와도 비슷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24) 제주대학교박물관, 『외도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유적발굴조사 수정사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도, 2000, 39쪽~49쪽

25) 전계서, 45쪽

〈표 2〉 도근천에 관한 주요기록들

사료명	시대	도근천관련 주요 내용
신증 동국여지승람	중종25, 1530	- 도그내는 제주서쪽 18리에 위치 - 수정내, 조공내라하고 제주사람이 말을 난삽하여 '도근'자는 '조공'자의 잘못이고, 큰내의 하류를 이루어 도근개라 불림
김상헌의 남사록	선조35, 1601	- 도그내폭포는 제주서쪽15리에 위치 - 수정내, 조공내라라고 하고, 제주사람의 말을 난삽하여 도그내는 조공내의 잘못된 것 - 말류는 도그내
이원진의 탐라지	효종4, 1653	- 제주 서쪽 20리에 위치 - 수정천 또는 도근천이라하는데 조공이 잘못 발음되어 도근이 된 것 - 내중 가장 큰하구는 조공포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숙종28, 1702	- 한라장축에 도그내개로 표기
탐라고지도	숙종35, 1709	- 도그내개로 표기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	경종4~영조52, 1724~1776	- 도그내개로 표기
제주삼읍도 총지도	18세기	- 도그내개로 표기
제주군읍지	고종36, 1899	- 조공내는 제주 서쪽 20리에 위치 - 수정내, 도그내라하고, 제주사람의 말이 난삽하여 조공의 음이 잘못되어 도그내라 함 - 말류는 조공개, 독근내



〈그림 9〉 탐라순력도의 제주배와 복원·해체된 덕판배

- <그림 9>에서 왼쪽의 그림<sup>26)</sup>은 탐라순력도에 묘사된 제주배로 제주목사와 그의 대규모 일행이 뱃놀이하는 모습(호연금서)과 아래는 우도에서 서울로 진상할 말을 싣는 장면(우도점마)을 그린 것으로 당시 제주배의 규모와 견고함 등을 짐작해볼 수 있음
- 오른쪽의 사진<sup>27)</sup>은 복원된 덕판배와 그 배가 해체된 모습으로 이를 판옥(板屋)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기술로도 확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음
- 여기에 포구 인근이라는 장소와 도근천이 한라산 인근에서 발원한다는 점은 배를 만들기 위한 거목을 한라산 인근에서 벌목하여 도근천을 이용해 배를 만들 수 있는 곳까지 운반했을 가능성도 높기때문에 배와 판옥의 관련성을 높게 해줌
- 따라서 배를 만들면서 나오는 ‘널’이나 폐목선에서 나오는 폐자재 ‘널’이 충분히 판옥(板屋)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임
- 판옥의 형태는 세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하나는 초가나 와가의 구조와 비슷하면서 단지 지붕 재료만 널을 이용하는 지붕형 판옥이고,
  - 다른 하나는 벽체는 널을 이용하고 지붕은 초가와 같은 것
  - 마지막은 벽과 지붕이 전부 널을 이용하는 경우
- 후자의 두 경우 반드시 ‘널’이 아니거나 통나무 형태일 수도 있을 것임
- 단, 판옥의 용도를 살림집이나 혹은 창고, 작업장일 수도 있으며, 이는 관노 민수가 ‘백성이 기거한다’는 의미를 확장 시켰을 때 가능한 것임

## 2. 제주에 남은 원(元)제국의 후손들과의 연관성

- 조선전기까지 제주에 남아있던 원(元)제국의 후손들에 의해 기인했다는 것
- 고려 공민왕 23년(1374년) 최영 장군이 목호의 난 평정 이후 제주에서의 원(元)의 세력은 절멸하다시피 하였으나 이미 제주인과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그 문화와 풍습은 남아 있었음<sup>28)</sup>

26) 이형상, 『탐라순력도 영인본』영인본, 제주시청, 제주도, 2004, 101쪽, 37쪽

27) 고광민, 「덕판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검색일:2021/07/17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28) 1271년(고려, 원종 12년) 삼별초 군이 여몽 연합군에 의해 평정된 후 원(元)은 직영목마장을 제주에 설치하고



- <그림 10><sup>30)</sup>은 중세 동북아 해양교류도로 원(元)제국이 제주를 직접 통치하던 시기에 제주를 중심으로 그린 항로들로, 이를 통해 판옥이 제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 일본 정벌을 위해 원(元)은 제주에 배 일백척을 건조할 것을 요구<sup>31)</sup>하고, 투항한 남송의 군인들을 대거 제주로 이동시켰기에 이와 관련하여 이동이 편한 막사 형태의 판옥이나 남송의 목조 기술이 그들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3. 조선초기 이주민들의 주거 가능성

- 조선이 개국하고 불교를 탄압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육지부의 승려들이 이런 탄압을 피해 제주로 이주하거나, 당시의 혼란한 사회에 부적응한 자들 상당수가 중앙의 행정력이 덜 미치는 제주로 이주하게 되면서 제주는 한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sup>32)</sup> 이들 이주민들에 의한 주거시설이 바로 제주 판옥일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대규모 인구 유입은 당시 제주에 수많은 불당이 생겨난 배경이 되기도 했고, 원 제국 황실의 원찰로 추정되는 법화사와 관련된 기록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최부가 이 시기에 ‘제주추쇄경차관’이라는 생소한 관직으로 제주로 부임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제주로 유입된 이들 중에 상당수가 범죄자라는 인식을 중앙 정부에서는 갖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다만 이주민들의 주거시설이었을 경우 판옥은 고급자재인 잘 재단된 ‘널’보다는 폐목선의 폐자재처럼 재활용할 수 있었던 목재이거나 가공이 덜 된 목재를 이용했었을 것이며, 이는 관노 민수의 신분과 그가 궁벽한 곳이라 표현했던 것을 연결해보면 가능할 것임

30) 국립제주박물관, 『고려건국1100주년 2017~2018년 기획특별전 삼별초와 동아시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 2017, 216쪽

31) 고광민, 「덕판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검색일:2021/07/17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32)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호, 2005, 56쪽

## 4. 소결

- 이상에서 제주 판옥은 배에서 얻은 재료에 기인했다는 것과 원(元) 제국의 남겨진 후손들과의 관련성, 그리고 사회혼란기에 제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됨에 따른 주거시설이라는 세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음
- 이것은 인조의 출륙금지령이 있기 160년 전이기 때문에 대형 목선이 다수 생산되었고 따라서 목조 기술 또한 상당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들임

## IV.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연관성

### 1.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연관성에 관한 기록들

#### 1-1. 배목수가 건축(建築)에 동원된 기록들

- 제주 판옥(板屋)의 기록보다 앞서는 1307년(충렬왕 33년) 『고려사』 세가(世家)에 병선군(兵船軍)을 건물역사에 동원한 기록과 선군(船軍)을 창고 건축에 투입한 기록<sup>33)</sup>이 있음
  - 6월 …병오일에 전왕이 좌승지 김지겸(金之兼)을 보내 왕에게 건의하기를 ”조성도감판환이(桓順)로 하여금 병선군을 영솔하고 내영윤 강순(康順), 호군 이주(李珠)와 더불어 역사를 감독하여 시가지의 양쪽에 장랑(長廊) 2백간을 짓게합시다“라고 하였으므로 왕이 그 의견에 좇았다. 卷第二十二, 忠烈王世家. 三十三年… 六月… 丙午, 前王, 遣左承? 金之兼, 來啓, 令造成都監官桓頭, 領兵船軍, 與內盈尹康順·護軍李珠, 董役, 營造市街兩旁長廊二百間, 從之.
  - 11월… 신미일… 이 날 왕이 비답한 이후 판검교의 사무가 더욱 번잡하게 되었다. 또 전농사에 분부를 내리기를… 5) 동적창(東積倉)과 서적창(西積倉)을 선군과 기인(其人) 각각 1백 명과 제색장인들을 사용하여 적당히 건설할 것. 卷第三十三, 忠宣王世家. 卽位年… 十一月… 辛未… 是日, 下批, 判檢校之職, 益繁矣. 又下旨于典農司… 東西積倉, 用船軍·其人, 各一百名, 及諸色匠
- 또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424년(세종 6년) 선군(船軍)에게 국가 대사 이외에 역사를 시키지 말게 하자는 상소가 올라왔고 이를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음<sup>34)</sup>
- 1494년(성종 25년)에는 당령수군이 역사하는 노고를 감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당령수군(當領水軍)을 여러 군(君)의 집을 영조하는데 역사시키는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라는 대목이 나옴<sup>35)</sup>

33) 임원빈외 3인, 『고려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신서원, 서울, 2004, 257쪽

34) 장학근·이민웅, 『조선시대 수군-실록발췌수군관련 사료집 1』, 신서원, 서울, 1997, 294-295쪽

- 이는 수군을 동원해 왕족들의 집을 건축(建築)했다는 것을 뜻하며 ‘완원군’이나 ‘공신옹주’ 등의 구체적으로 이름도 나오는데, 당시 수군을 동원하는 것이 빈번한 탓인지 같은 시기에 각처 역사에 당령선군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난이 또다시 등장함<sup>36)</sup>
- 이 시기는 특히 제주 판옥(板屋)이 기록된 1481년(성종 12년)과 비슷한 시기이기에 주목할 만함
- 조선시대 각종 궁궐 건축(建築)과 관련된 『의궤』에서는 배를 만들던 목수인 ‘선장(船匠)’ 혹은 ‘조선장(造船匠)’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주로 배를 만들지만 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건축공사에서 용마루나 추녀처럼 길고 휘어진 부재를 다듬는 일을 하였다고 함<sup>37)</sup>

## 1-2. 승려들을 배 건조(建造)에 참여시킨 기록들

- 1377년(우왕 3년) 『고려사』 세가(世家)에 전선의 건조를 위해 각 도의 중들을 모집하였다는 대목이 있음
  - 우왕 3년…3월에 전투에 직접 쓸 배를 만들기 위하여 중들을 경산(京山) 및 각 도에서 모집하였는데 양광도에서 1천명, 교주도·서해도·평양도에서 5백명, 경산(京山)에서 3백명이었다. 우왕이 명령하기를 “중들 가운데서 만약 구차히 피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군법으로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각 도에 통첩하여 전투에 직접 쓸 배를 만드는 목수 1백명의 식량은 그들의 처자들에게도 주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卷第八十一, 兵志1, 兵制, 五軍. 辛禡三年…三月, 徵造銃戰船僧從於京山及各道, 楊廣道一千人, 交州·西海·平襄道, 名各百人, 京山三百人, 令曰, 僧從如有苟避者, 輒以軍法論, 移牒諸道, 其船匠一百人饒凜, 及其妻孥. <sup>38)</sup>
- 즉 배 건조(建造)에 승려들을 동원한 것으로 앞서 언급한 도근천 인근의 수정사와 수정사 소유의 배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임
- 비록 해당기록에서 제주지역이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궁궐 건축(建築)에 승려들을 대거 투입하였듯이 고려말 전함의 건조(建造)에 승려들이 동원된 것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음
- 사찰을 건축하던 승려들 또한 건축(建築)과 건조(建造)의 기술을 모두 갖춘 목수일 수 있음

35) 김주식외 4인, 『조선시대 수군-실록발췌수군관련 사료집 II』, 신서원, 서울, 2000, 424-425쪽

36) 김주식외 4인, 『조선시대 수군-실록발췌수군관련 사료집 II』, 신서원, 서울, 2000 426쪽

37)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조선시대의궤용어사전 I -왕실전례편』, 경인문화사, 2012, 236쪽

38) 임원빈외 3인, 『고려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신서원, 서울, 2004, 445쪽

### 1-3. 판옥선(板屋船)과 판옥(板屋)의 연관성

- 판옥(板屋)이 배로부터 기인한다는 가설과 반대로 판옥이 먼저이고, 이후 판옥(板屋)의 영향으로 판옥선(板屋船)이 가능했을 수도 있음
- 이는 판옥선이 1555년(명종 10년)이 되어서 새로운 군함으로 건조<sup>39)</sup>되었고, 이에 비해 제주 판옥(板屋)은 1481년(성종 12년) 『동국여지승람』의 제주목 제영편에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판옥선보다 무려 74년이 앞서는 기록이기 되기 때문임
- 다음은 판옥선에 관하여 정리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
  - 판옥선은 임진왜란 중 크게 활약하였으며 뒤에 전선(戰船)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전투함으로 일명 판옥전선이라고도 한다. …(중략)…중종과 명종대의 삼포왜란(三浦倭亂)·사량왜변(蛇梁倭變)·을묘왜변 때에도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전투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팽배하였다. 이런 가운데 1555년(명종 10)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군함이 시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판옥선이다. 종래의 맹선은 선체 안에 병사들이 발을 붙이고 싸울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에 갑판을 깔고, 배를 움직이기 위하여 여러 개의 노를 달아놓는 평선(平船)인 데 반하여, 판옥선은 여느 선체 위 전면에 걸쳐 상장(上粧)을 꾸려 2층으로 꾸민 옥선(屋船)이다.
- 왜구의 잦은 출몰의 피해로 인해 조선정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군선의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했고,<sup>40)</sup> 그 결과 명종대에 이르러 드디어 판옥선(板屋船)이 만들어지게 된 것
- 그렇다면 당시 해안가에 있던 판옥(板屋)이 배를 만드는 이들에게 ‘집처럼 ‘널’로 지붕을 올려보자’라는 영감을 주었을 지도 모르며, 또한 배와 관련된 건축시설물로 판옥(板屋)의 쓰였다면 더 쉽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특히 이 시기에는 관선이나 전투선 외에 민간에서도 상당한 양의 배를 만들어 사용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1422년(세종 4년)에는 조정에서 개인의 배에 통행증을 발급하여 이런 문제를 줄이자는 논의와 함께 제도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음<sup>41)</sup>
- 그만큼 조선소가 많았을 것이고, 배 목수들 또한 그 수가 상당했을 것임

39) 김재근, 「판옥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2021/07/0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8C%90%EC%98%A5%EC%84%A0&ridx=0&tot=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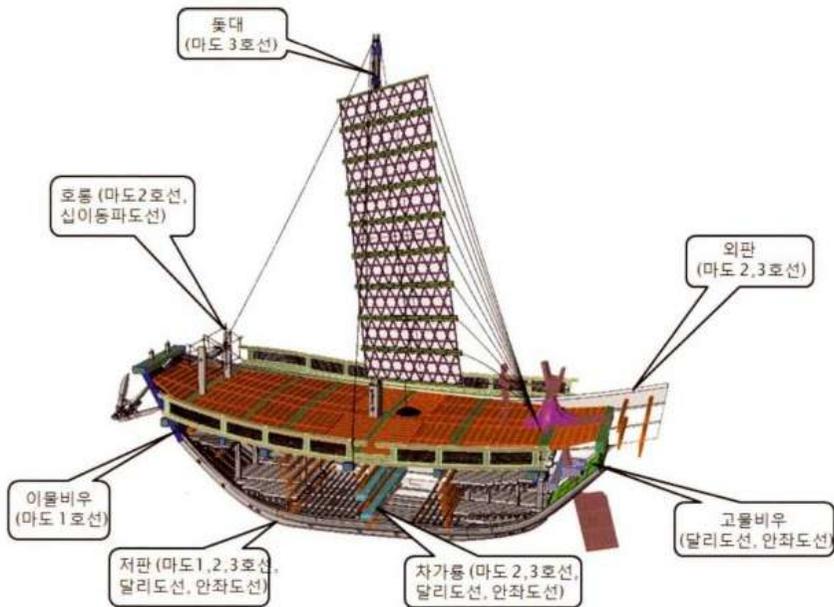
40) 장학근·이민웅(1997), 『조선시대 수군-실록발체수군관련 사료집 I』, 신서원, 서울, 1997

41) 장학근·이민웅, 『조선시대 수군-실록발체수군관련 사료집 I』, 신서원, 서울, 1997, 271쪽

## 2.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구조적 상호 연관성

### 2-1. 출수된 고려시대의 목선들 : 고려선

- 해저유물발굴조사를 통해 출수(出水)되고 있는 고선박 목선 유적은 <표 3><sup>42)</sup>과 같이 현재 14척으로 이중 우리나라 국적은 11척이며 9척이 고려 시대의 것으로 <그림 11><sup>43)</sup>과 같이 이를 고려선이라고 함



<그림 11> 해저발굴조사된 유구를 조합하여 만든 고려선 상상도

4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 발굴역사」, 검색일:2019/11/05, <http://www.seamuse.go.kr/>

43)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수중발굴 고선박 마도1호선 구조설계 및 조선공학적 분석 I, 2012, 83쪽

〈표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저발굴조사 현황

발 굴 년 도	발 굴 명	국적 및 시대	비 고
1976~1984	신안 해저발굴	원 1323	원-신안선
1980, 1983, 1996	제주 신창리 수중발굴	원 12~13세기	유물
1981~1987	태안반도 수중발굴	-	유물
1983~1984	완도 어두리 '완도선' 수중발굴	고려 12세기	고려선
1991~1992	진도 벽파리 '진도선' 발굴	원 13~14세기	원-진도선
1995~1996	무안 도리포 수중발굴	고려 14세기	유물
1995	목포 '달리도선' 발굴	고려 13~14세기	고려선
2002~2003	군산 비안동 수중발굴	고려 12~13세기	유물
2003~2004	군산 '십이동파도선' 수중발굴	고려 11세기	고려선
2004~2005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	고려 13세기	유물
2005	신안 '안좌도선' 발굴	고려 14세기	고려선
2006~2009	군산 야미도 수중발굴	고려 12세기	유물
2006	안산 '대부도선' 발굴	고려 12~13세기	고려선
2007~2008	태안 대성 '태안선' 수중발굴	고려 1131	고려선
2008~현재	태안 마도 해역수중발굴	고려	유물
2009~2010	태안 '마도1호선' 수중발굴	고려 1208	고려선
2010	태안 '마도2호선' 수중발굴	고려 1213	고려선
2010	태안 원안 해역수중발굴	고려	유물
2011	태안 '마도3호선' 수중발굴	고려 1265~1268	고려선
2012~2013	인천 웅진군 '형용도선' 수중발굴	남북국시대	신라선
2015~	안산 대부도 2호선 발굴	고려 12세기	조선한선
2012~2017	진도 명량대첩로(오류리) 인근해역 수중발굴	삼국, 고려, 조선	유물



〈표 5〉 마도1호선-3호선에 적용된 목구조 현황

구 분		고 려 선			비 고
부위	구조	마도1호선	마도2호선	마도3호선	
저판	이음	턱걸이장부이음	장부이음	장부턱이음	
		세로형 반턱이음, 맞댐이음	맞댐이음	가로형 반턱이음	
		맞댐이음	선수 방향은 세로형반턱이음, 선미방향 맞댐이음	13C 달리도선과 유사	
	연결 구조	맞댄쪽매방식 : 장삭과 산지를 박아고정	①중앙부재1열과 좌우현에 붙는부재2열의 연결구조 - 장삭과 산지로 고정	맞댄쪽매방식	
		맞댄쪽매방식 : 장삭과 산지를 박아고정			
	이물 비우	연결 구조	은살대(장삭) 꽃기방식		
이음		반턱이음	맞댄이음과 반턱이음	맞댐이음, 반턱이음 (선미방향)	
외판	연결 구조	상하부재연결:턱붙 이 클링커식, 피삭과 산지로 고정	상하부재연결:턱붙이 클링커식, 피삭과 산지로 고정	상하부재연결: 클링커식, 피삭과 산지로 고정	
		쪽매방식(근현대목 선에도 사용)			
내부 구조물	연결 구조	'형태 : 'O'형, 'ㄱ'형, 'ㄴ'형, 'X'형, 'L'형			
	맞춤	반턱맞춤, 제비촉맞춤, 통장부맞춤, 장부맞춤			

- 출수된 목선들은 침몰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당대의 목조 기술을 관찰할 수 있는 사례가 됨
- <그림 12>와 <표 5>는 우리 전통 배의 단면도와 주요 명칭을 정리한 것임<sup>44)</sup>
- <표 4><sup>45)</sup>는 해저발굴조사가 비교적 최신이고, 발굴상태가 좋아 목선의 구조연구에 탁월하여 관련 연구실적이 많은 마도1호선, 마도2호선, 마도3호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현황을 정리한 것임
- 배의 구조는 주로 맞춤과 이음이고, 장식과 산지 등 연결구조로 되어있으며, 이를 건축의 목구조와 비교할 수 있음
- 다만 이 구조만으로 시대적 특징을 찾기는 무리가 있음

## 2-2.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들

- 안동 봉정사 극락전: 12-13세기, 국보 제15호



<그림 13> 안동 봉정사 극락전 사진, 2021년 10월 현재

4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도록』, 2019, 235쪽-236쪽

4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1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3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4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6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우왕 2년(1376년) 대수선, 국보 제18호



〈그림 14〉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사진, 2021년 10월 현재

■ 영주 부석사 조사당 : 14세기, 국보 제19호



〈그림 15〉 영주 부석사 조사당 사진, 2021년 10월 현재

■ 예산 수덕사 대웅전: 충렬왕 34년(1308년), 국보 제49호



〈그림 16〉 예산 수덕사 대웅전 사진, 2021년 08월 현재

■ 강릉 임영관 삼문(객사문): 14세기, 국보 제51호



〈그림 17〉 강릉 임영관 삼문(객사문) 사진, 2021년 08월 현재

■ 이외에 북한지역에 있는 황해도 성불사 응진전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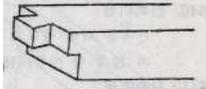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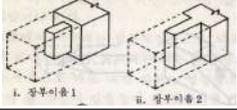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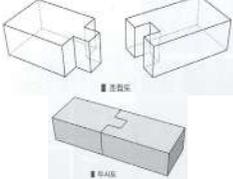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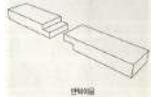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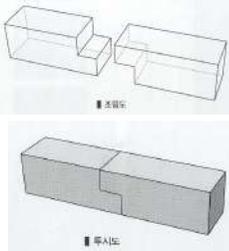
### 2-3. 출수된 목선의 구조와 건축의 목구조 비교

- 당초 고려 시대의 목선인 고려선과 고려 시대의 건축들을 비교하여 구조적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으나, 고려선의 구조만으로는 시대적 특징을 구별하기에 무리가 있기에 건축에 있어서의 목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고려 시대 이후로도 확대 시켜보기로 함
- 따라서 <표 6><sup>46)</sup>는 <표 5>의 고려선의 구조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이후까지의 우리 전통건축의 구조와 비교하여 정리한 것임
- 땅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건축과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하는 배는 구조적으로는 목구조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각각 저항해야 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구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연결방식에 있어 장삭과 피삭으로 각각의 부재들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힘모멘트 등에 저항하는 배의 구조방식은 건축과 크게 차이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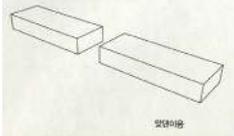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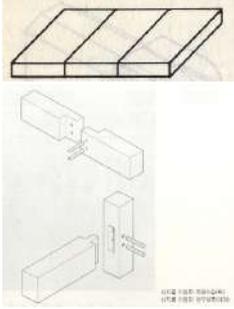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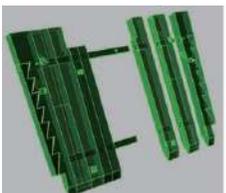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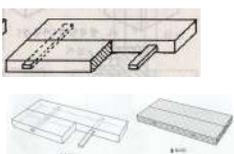
46) ① 배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1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3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마도4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6

② 건축내용: 『전통 목조건축 결구법』,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장기인, 『한국건축용어집』, 보성각, 서울, 1979,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서울, 2017, 정연상, 『맞춤과 이음』, 고려, 서울, 2010

〈표 6-1〉 마도1호선-3호선 기준의 배와 건축의 목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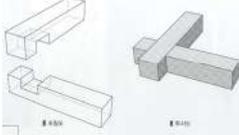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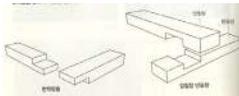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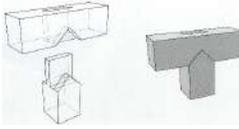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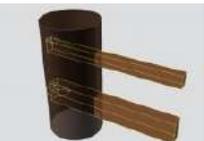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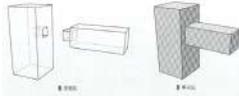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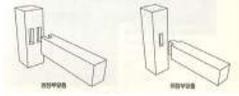
구 분	배		건 축		비 고
	구조상세도	구조상세도	구조상세도	설명	
이			<p>턱(걸이)주막장이음: 턱을 지어 걸치 위에 주막장을 내어 물리는 이음</p>		
			<p>턱걸이주막장부이음 : 하단에 턱을 둔 주막장부를 내고 주막장부 홈을 판 다른부재를 내려 물리는 이음</p>		
			<p>반턱주막장부이음 : 부재의 마구리 높이의 반을 주막장부로 만들어 다른 부재의 주막장부 홈에 끼이게하는 이음</p>		
미			<p>장부: 재의 끝을 가늘게 만들어 띠 재의 구멍에 끼는 축</p>		
					
			<p>-한부재의 마구리에 장부를 내고 다른부재에 장부 홈을 파서 밀어 넣는 이음방식. -부재마구리에서 깎아낸 장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재를 끼운 이음보다 부재 수축에 대한 결속력이 강하고, 맞댄이음, 반턱이음보다 뒤돌림에 효과적이다. -이음재의 축방향력으로 인장력이 작용할경우 결속력이 약해지므로 보강이 필요하다. 보강방법은 축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수직부재간 장부이음은 주로 수평방향으로 산지를 끼워 보강하고, 수평부재간에는 띠철등 철물보강한다.</p>		
반턱이음	-		<p>부재끝부분을 일정 길이만큼 반씩 살을 제거하여 서로 맞대 연결한것</p>		
			<p>-두부재의 마구리를 각각 반씩 따내어 서로 물리는 이음으로, 목부재의 이음 중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 방식 -이음부에 작용하는 직압력으로 결속하는 방식으로, 이음재의 축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할경우 결속을 유지할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축, 나비장이나 현대에는 띠새, 볼트 등 철물보강 -추로 창방, 보, 난간 돌린대 등 수평부재를 잇는 곳에서 사용되며, 기둥 등의 지지재 중심에서 높이기 때문에 이음길이는 기둥의 지름 등 지지재의 크기보다 작게한다.</p>		

〈표 6-2〉 마도1호선-3호선 기준의 배와 건축의 목구조 비교

구 분	배		건축		비고
	구조상세도	구조상세도	구조상세도	설명	
이 음	세로형 반턱 이음		-	-	
	가로형 반턱 이음		-	-	
	맞댐 이음			아무런 가공없이 두부재의 말구면을 붙여 놓은 것, 수평응력을 받지 않고 수직응력만 받는 부재에서 사용가능, 고건축에서는 잘사용하지 않는 이음법으로 못을 박아 장선등을 수평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현대목구조에서 많이 사용	
연 결 구 조	맞댐 쪽매: 장삭, 산지			-맞댐쪽매:널재를 나란히 옆으로 대어 넓게하는 것을 쪽매라하며, 널엷은 맞대것은 맞댐쪽매라한다.  -산지:같은길이방향의 두부재 이음부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맞춤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보강재, 축보다 길지만, 단연크기는 같거나 크다.	
	은살대 (장삭) 꽂기 방식			널 측면에 은살대를 꽂아 연결하는 쪽매방식	



〈표 6-4〉 마도1호선-3호선 기준의 배와 건축의 목구조 비교

구 분	배		건 축		비 고
	구조상세도	구조상세도	설 명		
맞 춤	반턱 맞춤			두부재를 서로 높이의 반 만큼 따내어 맞춤결구방식으로, 십 자맞춤이라고도하며, 이때 위 에 있는 부재를 업힐장, 밑에 있는 부재를 받음장.	
			부재두께의 반씩을 걷어내 맞 대어 맞춤하는 것으로 맞춤의 기본이 되며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맞춤법:모서리에서 평방을 반턱맞춤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포를 짤때 첨자(받음장)와 살미 (업힐장):기둥머리 사개맞춤에 서 창방과 익공부재가 역시 반 턱으로 만나는 것이 보통:모서 리에서 도라의 맞춤도 반턱을 기본으로 한 연귀맞춤		
	제비촉 맞춤			한 재 좌우를 연귀내어 다른 재에 우리는 결구방식, 주로 중앙에 설치되는 머슴동자나 문선, 인방에서 사용	
	통장부 맞춤			-부재의 한끝이 다른부재의 홈 에 통으로 끼인 결구방식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건물 과 현대도 꾸준히 사용되는 방 식 -수직재와 수평재 간 맞춤은 사갈이나 양갈 트 기둥과 창방 맞춤, 고주와 종량의 맞춤, 동 자주와 정어의 맞춤 등에서 보 이며, 보통 수직재에 홈을 파 고 수평재가 통으로 끼워 결구	
장부 맞춤			한 재의 마구리에 장부를 내고 다른 재에 파놓은 장부 홈에 맞추는 결구방식		
			장부는 외장부와 쌍장부로 뒷 보를 고주에 연결하며 외장부 를 많이 사용하며 때에 따라서는 산지(쌈기)를 밖아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기도한다. ;인방 은기둥에 연결할때는 쌍장부를 많이 이용하는데, 인방은 기둥 을 다세우고 나중엔 연결하기 때문에 옆으로 끼워넣는다. 이 를 위해 인방의 장부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하여 먼저 긴 쪽을 깊이 밀어 넣었다가 반대 쪽 장부를 끼워넣는다. 그리고 긴 쪽 장부사에는 쌈기를 밖아 중부가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함		

### 3. 소결

- 이상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배 목수들이 건축(建築)에 동원되거나 승려들 또한 배의 건조(建造)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인 목수들이 상당히 존재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특히 조선 시대 의궤에 의하면 배를 만들던 목수인 선장들은 추녀나 용마루와 같이 길고 휘어진 부재를 다듬는 일에 동원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전통 목조(木造)와 전통 목선(木船)의 구조적 유사점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함
- 제주 판옥이 실존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기록과 정황 등을 근거로 판옥이 실존했고, 배와 관련이 있으며, 판옥선과의 연관성까지 확장 시켜볼 수 있었음
- 이 경우 판옥은 제주만의 건축유형이 아니라 도서 해안지방에 널리 퍼진 일반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또한 제주의 전통 목선과 제주의 전통 건축을 비교하지는 못하였지만, 대신에 고려선인 마도 1호선에서 3호선의 목구조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전통 건축의 목구조에 대입하여 비교함으로써 배와 건축의 구조적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음
- 특히 바람의 영향이 큰 제주 해안지역에서 배에 적용되는 연결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 시대 의궤의 기록처럼 길고 휘어진 부재를 다듬는 방식이 적용되었을 수도 있음

## V. 몽고 판옥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 판옥과의 연관성

### 1. 몽골 판옥에 관한 우리의 기록

#### ■ 조선전기 문인 허봉이 태조부터 명종까지의 여러 야사를 묶어 편찬한 야사집인 해동야언<sup>47)</sup> 제2권의 성종대의 내용

- 남효온과 신영희는 모두 상사로 현달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 그들은 사람됨이 옛 일을 좋아하고 기개가 있으며, 남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틀에서 벗어났다. 효온의 견흥시(遣興詩)에, ...중략...호원이 대송을 몰아내니 (胡元驅大宋) 양경은 황진에 어두웠네 (兩京迷黃塵) 노재 허문정공은 (魯齋許文正) 피발하고 그 신하가 되었다 (被髮爲其臣) 요순의 도를 가져다가 (欲將堯舜道) 억지로 판옥인을 교화하려 하였건만 (強教板屋人) 방(方)과 원(圓)은 같이할 수 없는 것이 (方圓不能周) 필경에는 새 백성 이루지 못하였다 (畢竟無新民)...생략<sup>48)</sup>

#### ■ 1922년에 간행된 조선전기 학자 남효온의 시문집인 추강집(秋江集)<sup>49)</sup>의 제8권 속록(續錄)의 시 견흥(遣興) 5수<sup>50)</sup>

- 오랑캐 원나라가 대송을 몰아내니 (胡元驅大宋) 서경에는 누른 먼지 가득하였네 (西京迷黃塵) 그때에 노재 허 문정공이 (魯齋許文正) 오랑캐 복장으로 신하 되었으니 (被髮爲其臣) 요 임금 순 임금의 도를 가지고 (欲將堯舜道) 억지로 오랑캐를 교화하려 함이라 (強教板屋人) 모난 것 둥근 것은 함께할 수 없어 (方圓不能周) 결국에는 백성을 새롭게 함이 없었네 (畢竟無新民)

47) 이태진, 「해동야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2021/8/1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95%B4%EB%8F%99%EC%95%BC%EC%96%B8&ridx=0&tot=4>

48) 김종오, 김익현 공역, 「판옥」, 한국고전종합DB, 검색일:2021/08/13,  
[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

49) 권오호, 「추강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2021/8/1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6%94%EA%B0%95%EC%A7%91&ridx=0&tot=3>

50) 박대현 역, 「판옥」, 한국고전종합DB, 검색일:2021/08/13,  
[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

- 일제강점기의 유학자 조긍섭<sup>51)</sup>이 편찬한 암서집(巖棲集) 제10권 서(書)의 송자경에게 답함(答宋子敬 癸卯)
  - ...종락...추강(秋江)이 이른바 “요 임금과 순 임금의 도를 가지고, 억지로 오랑캐를 교화하려 한 것이라. 모난 것 둥근 것은 함께할 수 없어 결국에는 백성을 새롭게 함이 없었네.”라는 것이니, 후세에 상론(尙論)할 자들이 능히 말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생략<sup>52)</sup>
- 위의 시들은 결국 조선전기 남효온의 글이고 이를 재인용된 것들로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판옥인(板屋人)'이며 이는 남송을 이긴 오랑캐인 원제국의 사람을 낮추어 부르던 용어라는 점이며, 이는 몽고인들이 판옥에 살기 때문임

## 2. 제주에 남은 원제국 후손들의 사회적 위치와 주거

- 고려 공민왕 23년(1374년) 최영 장군이 목호의 난 평정 이후 살아남은 제주의 원제국의 후손들은 관노 등으로 신분이 격하되었고, 일부는 말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됨



〈그림 18〉 청대 몽골 지역의 판옥(출처: 한양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소)

51) 이태진, 「해동야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20212/8/1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5%94%EC%84%9C%EC%A7%91&ridx=0&tot=1>

52) 남춘우 역, 「판옥」, 한국고전종합DB, 검색일:2021/08/13,  
[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

- 관노 민수가 말한 궁벽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고, 몽고인들의 주거인 몽고풍 판옥이 제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3. 몽골 판옥의 사례

- <그림 19><sup>53)</sup>은 현재 몽골 지역에서 넓게 사용되고 있는 판옥으로 도구와 재료, 설비 등의 변화로 현대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 전통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음



<그림 19> 내몽골 호룬페이(呼倫貝爾) 무각릉(木刻楞) 사진, 2008년 현재

- 문화재연구소의 몽골국적 척투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도 이런 형태의 판옥은 몽고전역에 있으며, 일부 지역의 특징은 아니라고 함
- 비록 본 연구의 가설과 대입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맞지 않지만, 현재에도 계속 판옥의 형태는 몽고에서 존재하고 있음

53) 한양대 동아시아건축역사 연구실 제공

## 4. 소결

- 일반적으로 몽고인들의 주거는 유목 생활에 유리해 보이는 텐트형 이동 천막인 ‘게르’이며, 건조한 기후의 초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함
- 또한 판옥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인 ‘널’이 필요하고, 이는 거목이 자라는 숲이 필요한데, 초지 생활을 하는 몽고인들이 얻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몽고인들은 사막기후에서부터 초지 그리고 강과 숲이 있는 곳까지 북방의 넓은 영토를 갖고 생활하고 있기에 숲이 있는 지역에서 ‘널’을 얻을 수 있으며, 조립이 쉬운 형태의 판옥을 이동식주거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
-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을 탄생시켰던 송나라를 누르고 제국을 건설한 오랑캐 몽고인을 비하하고자 ‘판옥인’이라 칭하던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시를 통해 몽고인의 주거는 판옥이라는 인식을 당시 조선인들도 했었던 것으로 보임
- 다만 몽고인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기 때문에 기록의 수도 미미하여 모든 조선인이 그러한 인식을 했다고 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제주에 남겨진 원제국의 후손들이 말을 관리하면서 몽고풍의 이동식 주거형태인 판옥을 이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음

## VI. 너와집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 판옥과의 연관성

### 1. 강원도 삼척지역의 너와집 특징 및 사례

#### 1-1. 강원도 삼척지역의 너와집 특징

- 너와집이란 지붕의 재료를 기와나 이엉 대신 판재를 얇게 쪼개어 차곡차곡 깔아놓은 집으로 수목이 울창한 산림지역에서 볼수 있으며, 주로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함경도 지역과 평안도 산간지역, 강원도 지역, 울릉도 등지에 분포되어 있음<sup>54)</sup>
- 너와집은 들레들레 돌아가며 주위에 실들이 있어 '들거리집', '두루거리집', 들레집', '들리집', '두리집', '두렁집'으로 다양하며, 너와집의 유형이나 지붕의 구조, 벽체의 구성재료로 보면 귀틀집, 판자집, 토벽집에 속함<sup>55)</sup>
- 추위와 맹수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외양간이 집안에 위치하고, 까치구멍이라 불리는 환기 구멍이 양쪽 합각부에 있는 것이 특징임<sup>56)</sup>
- 삼척에는 겹집들이 많은데, 온돌 중심형과 마루 중심형 평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마루중심형은 안동의 까치구멍집과 유사함<sup>57)</sup>
- 삼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간지역으로 화전을 일구며 사는 화전촌 많고, 너와집은 이런 화전민들의 주거임
- 화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 진흥왕시대에 문헌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 그 수가 증가하다 일제강점기 식민정책의 농촌계급분화로 급증하여 1930년대 약 18만 정보(町步)<sup>58)</sup> 였던 것이 1939년에 약 43만 7,930정보(남한은 5만 1,400정보)에 이르게

54) ㈜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 『한국의 전통가옥 08 삼척 대이리 너와집 기록화 보고서』, 문화재청, 2005년, 19쪽

55) 전계서, 19쪽

56) 전계서, 20쪽

57) 전계서, 21쪽

58) 땅의 넓이를 재는 단위로 1정보는 3000평(9,917.4㎡)

되었으나, 광복후 화전민들의 이주 정착사업으로 안전농가로 육성시키고 경사지는 산림으로 복구하는 정책으로 1960년대 완전히 사라짐<sup>59)</sup>

## 1-2. 삼척 대이리 너와집



〈그림 20〉 삼척 대이리 너와집 배치평면도 및 측면도

출처 : (주)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 『한국의 전통가옥 08 삼척 대이리 너와집 기록화 보고서』, 문화재청, 2005년, 87쪽~112쪽

59) (주)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 『한국의 전통가옥 08 삼척 대이리 너와집 기록화 보고서』, 문화재청, 2005년, 29쪽

■ 삼척 대이리 너와집 국립민속문화재 제 221호 이종옥 가옥<sup>60)</sup>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68-12
- 건립년대 : 조선시대 17세기로 추정
- 건축규모 : 대지면적 631㎡, 건축면적 67.23㎡, 건축높이 5.07m(용마루상단까지)
- 부대시설 : 곳간채 1동, 창고1동, 화장실 1동
- 식재수목 : 감나무, 밤나무, 뽕나무, 참나무 등



〈그림 21〉 삼척 대이리 너와집 전경, 2021년 8월 현재

- 이 집은 집주인의 선조가 병자호란때 경기도 포천에서 피난을 와서 지은 것으로 안동의 까치구멍집처럼 마루를 중심으로 평면이 구성되어 있음
- 〈그림 21〉의 현재 사진은 주출입구와 마당에서 촬영한 것으로 합각부가 보이는 방향이 주출입구이며, 현재 노인 두 분이 거주하고 계심



〈그림 22〉 지붕의 외부 및 내부 사진, 2021년 8월 현재

60) 전계서 13쪽

-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무를 쪼개 만든 너와와 용마루를 덮고 있는 굴피는 결속 장치 없이 지붕 위로 쌓았기 때문에 돌과 굵은 통나무(누름대)를 얹어 이를 보강함, 단 칩닝쿨을 이용하여 부재간 연결재로 사용하기는 함
- 지붕은 가벼워 보이지만 비가 왔을 시 나무가 흡수한 빗물의 무게로 기둥부 등의 목가구는 비교적 큰 통나무를 가공해 만들었는데, 주변의 풍부한 수목 때문에 가능함



<그림 23> 처마상세도 및 사진, 2021년 8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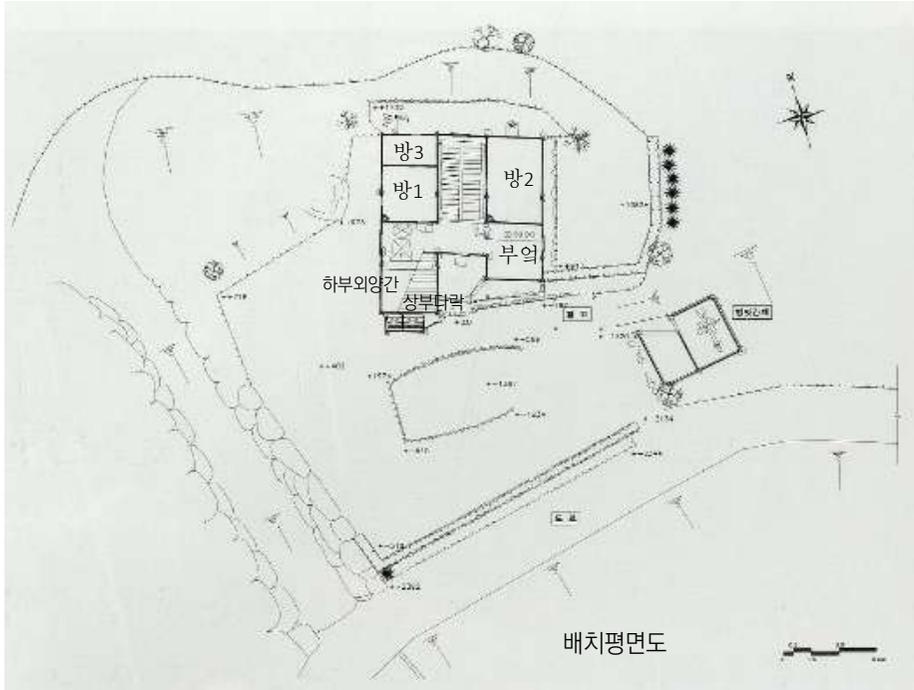
처마상세도 출처: (주)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 『한국의 전통가옥 08 삼척 대이리 너와집 기록화 보고서』, 문화재청, 2005년, 48쪽

- 또 한 바람의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외양간과 부엌의 외벽은 <그림 24> 처럼 모두 널을 이용하였고, 위아래로 흠을 파서 널을 끼워 넣는 방식임



<그림 24> 외양간 외벽 사진, 2021년 8월 현재

### 1-3. 삼척 신리 너와집



〈그림 25〉 삼척 신리 너와집 배치평면도 및 측면도

출처 : (주)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 『한국의 전통가옥 07 삼척 신리 너와집 기록화 보고서』, 문화재청, 2005년, 158쪽-186쪽

■ 삼척 신리 너와집 국립민속문화재 제 33호 중 강문봉 가옥<sup>61)</sup>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문의재로 1423-66
- 건립년대 : 조선시대 19세기로 추정
- 건축규모 : 대지면적 622㎡, 건축면적 73.02㎡, 건축높이 5.69m(용마루상단까지)
- 부대시설 : 방앗간 1동
- 식재수목 : 감나무, 대추나무, 뽕나무, 산추나무, 참나무 등



〈그림 26〉 삼척 신리 너와집 전경, 2021년 8월 현재

61) ㈜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 『한국의 전통가옥 07 삼척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 기록화 보고서』, 문화재청, 2005년, 17쪽

- 이 집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고, 19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됨
- 급한 산비탈에 위치하고 마을 길에 의해 대이리 너와집과 달리 주출입구가 합각부가 아닌 용마루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으로 위치함
- 대이리 너와집과 같이 마루 중심형 평면으로 안동의 까치구멍집과 유사한 구성임
- 2005년 이후 신축된 별도의 관리동들이 추가되어 <그림 25>의 배치평면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 내부는 관람할 수 없고 원주민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임
- 조사 당시 신리 마을주민들은 경복을 비롯한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화전민 출신들임



<그림 27> 측면 사진, 2021년 8월 현재

■ 대이리 너와집과 마찬가지로 용마루는 굴피로 덮었고 누름대와 돌로 고정시킴



〈그림 28〉 합각부 까치구멍과 지붕 사진, 2021년 8월 현재

- 까치구멍의 합각부에 박공널이 설치되었는데, 이점은 대이리 너와집과는 다르며 환기와 채광창인 구멍을 좁아 보이게 만드는데, 이는 문화재 정비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임



〈그림 29〉 처마상세도와 사진, 2021년 8월 현재

- 〈그림 29〉의 처마상세도와 사진을 보면 신리의 너와집도 대이리와 같은 구성임
- 대이리 너와집에서는 화장실이 별도의 채로 분리되어있으나 신리 너와집은 외양간과 붙어서 위치하는 차이점은 있으나 화장실 출입을 집안에서 할수 있지는 않음

- <그림 27>과 <그림 30>의 사진을 보면 외양간과 대문, 부엌은 모두 대이리 너와집과 마찬가지로 널로 외벽을 만들



<그림 30> 외양간 외벽 사진, 2021년 8월 현재

## 2. 울릉도 지역의 너와집 특징 및 사례

- 울릉도는 고인돌과 무문토기 등의 청동기 시대 유물의 발굴로 거주역사가 오래됨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거 우산국이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귀속되면서 우리의 역사로 공식적으로 편입됨
- 여진이나 왜구등의 왜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공도 정책의 추진되었고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주민이 살지 않는 빈섬이었으나 각 정부는 외교적·군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섬을 관리를 하였으며, 비공식적인 거주민은 계속하여 섬에 남아 있었음

- 고종 19년(1882년) 울릉도 개척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민이 장려되었고,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면서 강원도에 편입되었다가, 1906년 울도군으로 경남에 편입되었지만, 일제강점기인 1914년 경북으로 이속된 후 1915년 군제를 폐지하고 제주도와 더불어 도제로 변경되었으나 광복 후에 울릉군을 환원되어 1979년 남면이 울릉읍으로 승격하고 2004년엔 독도리를 신설함<sup>62)</sup>
- 울릉도의 대표적인 전통주거는 나리분지에 위치한 ‘울릉나리 너와 투막(귀틀)집과 역새투막집’인데, 울릉도 개척 당시에 있던 울릉도 재래의 집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너와집으로 1940년대에 건축한 것임<sup>63)</sup>
- <그림 31>, <그림 33>과 같이 이집은 5칸 일자집으로 큰방, 중간방, 갓방은 전부 귀틀구조로 되어있는데 큰방과 중간방은 정지에서 내굴로 되었고 갓방은 집 외부에 돌린 우데기를 돌출시켜 별도의 아궁이를 설치하였고, 집 주위에는 전부 우데기를 돌리고 앞부분에는 폭을 넓게 잡은 죽담이 있음<sup>64)</sup>



<그림 31> 울릉나리 너와 투막집 전경 (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6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울릉도」, 검색일:20221/10/1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A%B8%EB%A6%89%EB%8F%84&ridx=1&tot=58>

63)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지난간 시간을 읽다-민속문화재 이야기를 읽다』, 문화재청, 대전, 2017, 306쪽

64) 전게서 306쪽



〈그림 32〉 올름나리 너와 투막집 지붕상세 사진 (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33〉 올름나리 너와 투막집 내부 가구 사진 (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고종에 의한 이민정책에 따라 울릉도로 이주한 사람들은 주로 강원도, 경상도 출신들<sup>65)</sup>이었으며 이에 따라 주거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건물의 외관에서 지붕과 벽체를 모두 나무판으로 사용한 사례는 국내에서 유일<sup>66)</sup>하므로 이점도 주목할만함
- <그림 32>에서 보듯이 지붕은 삼척지역과 달리 다수의 돌로 지붕재를 지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겨울철 적설량이 많은 나리분지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바람의 영향을 받는 제주 해안지역의 제주 판옥에 다수의 이런 방식이 적용 가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음
- <그림 34>와 같이 투막집은 1945년대에 건립한 것으로서 본래 3칸 집이었으나, 한칸을 달아내어 현재는 4칸으로 되었고, 지붕은 새로 이었으며 큰방과 가운데 방의 벽은 귀틀로 되어있으며 <그림 35>와 같이 정지의 부뚜막은 아궁이에서 내굴로 되어있는데 정지 바닥은 죽담보다 낮게 하여 계단을 한단 놓아 오르내리게 하였음<sup>67)</sup>



<그림 34> 울릉 나리 역세 투막집 전경 (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65) 김석현 자문위원, 제주판옥에 관한 연구 자문회의록, 2021.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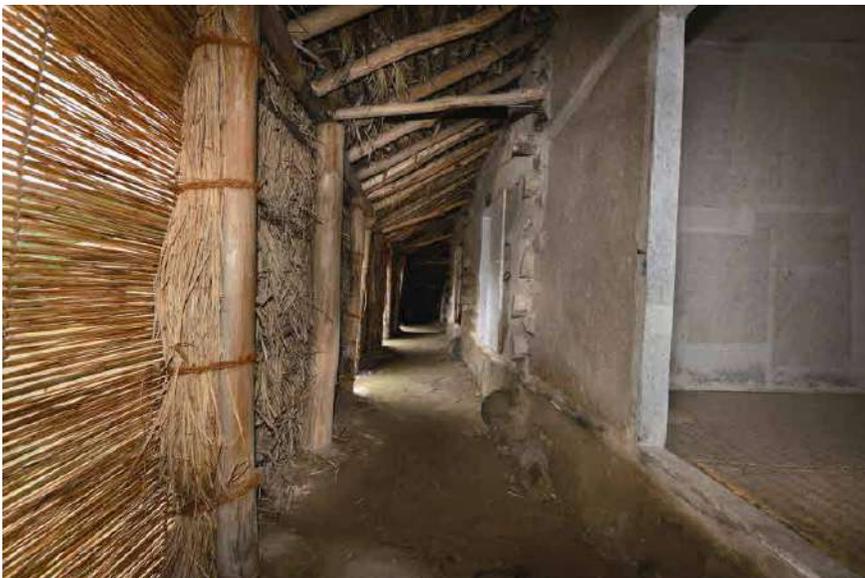
66) 전게서

67) 전게서 306쪽

- <그림 35>와 <그림 36> 같이 정지(부엌)에는 별도의 벽을 두지 않고 옥수수대로 세워 둘러 우데기로 가리고, 방 주위의 죽담은 앞쪽만 더 넓어져 활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음<sup>68)</sup>



<그림 35>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정지 (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36> 울릉 나리 역사 투막집 내부 통로 (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68) 전개서 306쪽

### 3. 석판집의 사례

- ‘판(板)’은 얇은 널로 앞서 용어의 정의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반드시 목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석판도 판옥의 사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임
- 지금은 북한에 속하는 개성은 경기도에 속하며 평안도와 함께 과거부터 석판집이 많이 목격되던 지역이었고, 현재 남한 지역에서는 개성 인근의 파주지역과 드물게 충청도 지역에서도 조사되고 있는 실정임



〈그림 37〉 평안도 만포 석판집 전경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

- 〈그림 37〉<sup>69)</sup>은 정전 후 중립국감독위원단으로 북한지역을 감독하던 체코군이 만포 지역의 마을을 촬영한 것으로 석판집들의 전경임
- 〈그림 38〉<sup>70)</sup>, 〈그림 39〉<sup>71)</sup>, 〈그림 40〉<sup>72)</sup>도 만포지역의 너와집을 개별로 촬영한 것으로 흙벽이나 회벽, 벽돌벽, 판벽 등 벽체는 다양하나 지붕은 공통적으로 석판으로 구성 되어 있음

69)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체코슬로바키아 중립국감독위원단이 본 정전 후 남과 북』,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2013, 151쪽

70) 전계서, 154쪽

71) 전계서, 154쪽

72) 전계서, 155쪽



〈그림 38〉 만포 석판 여관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



〈그림 39〉 만포 석판 국영만포직장상점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



〈그림 40〉 만포 석판집과 우물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

- 〈그림 41〉, 〈그림 42〉, 〈그림 43〉은 개성의 영향을 받은 파주 지역의 석판집으로 이 지역 부호의 약 100년 내외된 주택임



〈그림 41〉 파주시 금촌리 18 석판집 전경, 2021년 06월 현재



〈그림 42〉 파주시 금촌리 18 석판집 지붕 사진, 2021년 06월 현재



〈그림 43〉 파주시 금촌리 18 석판집 안채 사진, 2021년 06월 현재

#### 4. 소결

- 이주민들에 의해 지어진 삼척지방의 너와집은 주변의 풍부한 수목을 활용하여 만든 것으로 난방을 하는 공간은 흙벽으로 만들고 그 외의 공간은 두꺼운 널을 사용하여 판벽을 만들

- 나무를 쪼개 만든 판재를 결속재 없이 차곡차곡 쌓고 거대한 통나무인 누름대와 주변의 돌을 얹음으로써 그 무게만으로 지탱하는 방식은 바람의 영향이 없기에 가능한 것임
- 또한 건조 시 너와는 무겁지 않지만, 비가 내리면 빗물을 흡수해 무게가 늘어나고 누름대 또한 물을 흡수하므로 기둥 등의 목가구도 그 무게를 지탱하기에 큰 부재를 사용하는 데, 이것은 주변이 산지이기에 풍부한 수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 굴피집은 벌목을 금지하면서 너와를 대체하기 위해 생겨난 근대에 생겨난 것으로 대부분 굴피는 용마루 위를 덮는 용도로 부재간 연결이 어렵고 틈이 생기는 곳에 사용되던 부재임
- 목가구는 일반적인 방식인 이음과 맞춤의 방식이 적용되지만 너와를 덮기 위해 사용되는 지붕재의 경우는 침덩쿨을 이용하여 묶는 방식으로 연결시킴
- 화전의 시작이 신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지만, 현재 삼척지방의 너와집이 신라대로 올라가는 화전의 역사와 함께하는 화전민 고유의 주거인지 확신하기 어려움
  - 현재 남아 있는 너와집들은 이르면 대이리 너와집처럼 17세기의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20세기 전후의 것들로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의 상황이 반영된 것임
  - 평면구성을 보면 현재 주민들의 조상이 이주 전에 살았던 경북지역의 형태를 닮음
  - 다만 재료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함
  - 즉, 평면구성 등은 이주민들의 고향의 형식이지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기존 화전민의 방식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함
  - 따라서 이주민들에 의한 주거가 생겨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 있음
- 바람의 영향이 큰 제주에서 지붕재의 결속없이 삼척지방의 너와집 형식으로 판옥이 존재하기는 어려워 보임
- 또 한 재료의 수급에 있어서도 주변이 온통 풍부한 산림이 있던 삼척과 달리 제주는 한라산인근의 숲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울릉도 지역의 울릉 너와투막집의 경우 지붕재의 결속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돌을 사용하거나 집의 모든 재료를 나무 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주 판옥의 형상을 구성하는데 참조가 될 만한 사례로 보임
- ‘판(板)’은 얇은 널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목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석판도 판옥의 사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제주의 경우 석재는 주로 현무암질로 얇을 판을 만들어내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타지역의 사례로만 참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VII. 결 론

- 관노 민수의 한 줄 기록으로부터 시작된 본 연구는 비록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인 건축 유적이거나 그 외의 직접적인 추가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기록을 대조하고, 관련 사건 간의 연계성을 유추하여 세 가지의 가설을 세움
  - 첫째, 배로부터 기인한다는 가설
  - 둘째, 제주에 남은 원제국의 후손들과의 연관성
  - 셋째, 조선 초기 이주민들의 주거 가능성
-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이것을 입증하고자 함
  - 첫째,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연관성
  - 둘째, 몽골 판옥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 판옥과의 연관성
  - 셋째, 너와집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 판옥과의 연관성
- 첫 번째 배로부터 기인했다는 가설은 배와 건축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함으로, 제주 판옥 기록과 동시대의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함
  - 배목수가 건축에 동원된 기록들
  - 승려들을 배 건조에 참여시킨 기록들
  - 판옥선과 판옥의 연관성에 관한 기록비교 및 분석
- 두 번째 가설인 제주에 남은 원제국의 후손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몽고 판옥의 사례를 통해 찾으려고 함
  - 몽고 판옥에 관한 우리의 기록을 통해 당시 조선인들의 인식을 찾음
  - 제주에 남겨진 원제국 후손들의 사회적 위치와 주거환경을 추정함
- 마지막으로 조선 초기 사회적 혼란으로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의 주거시설일 가능성과 관련하여 강원도 삼척지역의 너와집을 통해 제주 판옥의 가능성과 이주민들의 주거를 새롭게 만들 때의 그 양상을 참고하고자 함

- 삼척 대이리 너와집 사례
  - 삼척 신리 너와집 사례
  - 울릉도 울릉 너와 투막집 사례
- 전통 목선과 전통 건축은 두 분야에서 활약한 기술자인 목수들의 활동에 관한 기록을 토대로 시작하였고, 의계를 통해 각 분야 기술자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또한 판옥에 관한 많은 기록은 주로 수군사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군선인 판옥선이나 군수시설과의 연관성을 찾고 배와의 관련성을 입증 해보고자 했으며, 이 경우 제주 판옥은 도서 해안지방에 널리 퍼진 일반적인 형태일수도 있다고 추정함
  - 조선의 건국이념인 성리학을 탄생시켰던 송을 누르고 세워진 원제국의 몽고인들을 조선인들은 오랑캐로 폄하했으며 또한 그들을 몰아내면서 조선이 건국하였기에 더더욱 인식이 좋지 않았고, 그 위세가 이전만 못하게 되어 관심도 적게 됨
  - 따라서 고려 시대의 그들의 패역사와 달리 기록은 거의 없으며, 그중 ‘판옥인’은 몽고인이라는 시 한편이 재인용을 반복하는데, 적어도 몽고인이 판옥에 산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제주에 남은 원제국의 후손들은 관노로 신분이 추락하고 초지에서 말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였기에 몽고풍의 이동식 주거형태인 판옥을 이용했을 수도 있음
  - 다만 바람이 거친 제주에서 몽고식의 판옥을 그대로 대입하기 보다는 변형된 형태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국내의 판옥의 사례로 볼 수 있는 너와집은 제주 판옥의 가능성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실증적인 건축유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강원도 삼척지역의 너와집은 타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유로 이주하면서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역사와 함께하는 것으로 이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의 그들의 주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양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즉 기본구조나 기술은 이주전 지역의 형태와 기술을 가지지만, 재료는 이주한 곳을 사용하거나 이주한 환경에 맞게 그 구조를 변형시킨다는 점
  - 이점은 제주 판옥이 제주로 이주한 이주민들에 의해 건설되었던 것이라면 집의 구조나 형식도 제주의 전통가옥들과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또한 삼척처럼 산간지역이 아닌 해안 지역에 위치했을 제주 판옥의 경우 너와집처럼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거나 풍부한 식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그러한 점에서 울릉도 지역의 울릉 너와 투막집의 경우 지붕재의 결속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돌을 사용하거나 집의 모든 재료를 나무 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주 판옥의 형상을 구성하는데 참조가 될 만한 사례로 보임
- ‘판(板)’은 얇은 널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목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석판도 판옥의 사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제주의 경우 석재는 주로 현무암질로 얇은 판을 만들어내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사례로만 참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또한 석판집의 경우 궁핍한 살림집이었다기 보다는 부유층의 주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노 민수가 언급한 궁벽함과는 거리가 멀
- 제주 판옥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제주 전통 민가의 구조를 참고하여 재료적인 측면에서 ‘판’을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비록 한 줄의 문헌 기록만 남아있어 물증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제주 ‘판옥(板屋)’이라는 건축유형의 출현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음
- 역사는 기록되어야 기억되며, 기억되지 않으면 잊혀져 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약 600년 전 사람인 관노 민수 그리고 사관 민수가 기록한 한 줄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 특히, 오랜 역사에 비해 대다수가 소실되어 남은 건축유적이 매우 적은 우리 현실에서 본 연구는 우리 건축의 다양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음

## 참고문헌

### 국문 참고문헌

- 김라니, 『제주 정의현(성읍)의 건축문화유산과 그 진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라니, 한동수,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제영편을 중심으로」, 건축역사학회 2019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9
- 김라니, 한동수,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문헌 기록을 통해 본 목조건축(木造建築)과 목선(木船)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2021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1
- 김건곤, 김태환, 어강석, 김정민 편, 『동국여지승람 제영사전 군현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 국립문화재 연구소, 『전통 목조건축 결구법』, 2014
- 국립제주박물관, 『고려건국 1100주년 2017-2018년 기획특별전 삼별초와 동아시아』, 국립제주박물관, 2017
-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수중발굴 고선박 마도1호선 구조설계 및 조선공학적 분석 I』, 2012
-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태안마도1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0
-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태안마도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1
-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태안마도3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2
-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태안마도4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2016
-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도록』, 2019
-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체코슬로바키아 중립국감독위원단이 본 정전 후 남과 북』, 서울역사박물관, 2013
- (재)민족문화추진회, 『신중동국여지승람 V』, 재판, (재)민족문화추진회, 1971
- 이형상, 『탐라순력도 영인본』, 제주시청, 2004
- 제주대학교박물관, 『외도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유적발굴조사 수정사지』, 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조성윤,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의 변화 추이」, 탐라문화, 26호, 2005
- N.Tsultem, 박진홍·신혜원·김영재·한동수 번역, 『몽골건축』,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 2020
- (주)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 『한국의 전통가옥 08 삼척 대이리 너와집 기록화 보고서』, 문화재청, 2005
- (주)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 『한국의 전통가옥 07 삼척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 기록화 보고서』, 문화재청, 2005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I 창호』, 보성각, 2019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IV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79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IV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2014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V 목조』, 보성각, 2021  
정연상, 『맞춤과 이음』, 고려, 서울, 2010  
최부, 서인범·주성지 번역, 『표해록』, (주)도서출판 한길사, 2004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지난간 시간을 읽다-민속문화재 이야기를 읽다』, 문화재청, 2017

## 신문기사

문정곤 기자, 「일제강점기 군산조선인의 ‘달동네살’ 흔적찾기」, 전북일보, 기사게재일:2019/07/24,  
<http://www.jjan.kr/news/>

## 홈페이지

<https://map.kakao.com/> (검색일 : 2021.4.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AF%BC%EC%88%98&ridx=0&tot=19> (검색일: 2021.7.5.)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0&levelId=tg\\_003\\_0990](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0&levelId=tg_003_0990)(검색일: 2021.7.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4%9C%EC%97%B0%EA%B4%80&rid> (검색일: 2021.7.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680> (검색일: 2021.7.5.)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검색일: 2021.7.17.)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8C%90%EC%98%A5%EC%84%A0&ridx=0&tot=3> (검색일: 2021.7.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D%95%B4%EB%8F%99%EC%95%BC%EC%96%B8&ridx=0&tot=4> (검색일: 2021.8.13)

[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 (검색일: 2021.8.1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B6%94%EA%B0%95%EC%A7%91&ridx=0&tot=3> (검색일: 2021.8.13)

[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 (검색일: 2021.8.1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5%94%EC%84%9C%EC%A7%91&ridx=0&tot=1> (검색일: 2021.8.13)

[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https://db.itkc.or.kr/search/list?q=query%E2%80%A0%E6%9D%BF%E5%B1%8B&secl=BT_AA&pageUnit=200&pageIndex=1) (검색일: 2021.8.13.)

<http://www.seamuse.go.kr/> (검색일:2019/11/05)

# Abstract

## A Study about the Jeju Pan-ock

Dong-Soo Han, Ra-Nee Kim

Keywords : Jeju Pan-ock, Panock, Type of Jeju archeature, Housing of Jeju, Donggukyeojiseungram

I started this study after discovering that Minsu, a man about 600 years ago, mentioned a new architectural type called 'Pan-ock' in a record he left when he was punished for slavery at Jeju. Although there are no additional records or architectural remains,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were made regarding the existential possibility of Pan-ock. First, that Pan-ock originated from materials obtained from ships, secondly, it was related to the descendants of the Mongol Empire, and lastly, it was a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y for many people who migrated to Jeju due to the chao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i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large wooden ships such as trade ships were being actively built, as it was 160 years before Chullyuk Geumjiryeon of king Injo was banned, and the woodworking skills were considerable. It is also a hypothesis established by comparing the records of Pan-ock with other records of the same period and inferring the relationship of related events.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architecture have been lost compared to Korea's splendid history,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explaining the diversity of our architecture.

## 연구진

---

연구책임 한동수 한양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김라니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

제주학연구 73

##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

발행인 || 김순자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TEL.(064)726-5623 FAX. (064)747-6140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838-7 9333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